성북동

성북동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

목차

성북동 마을 이야기 008

성북동의 예술가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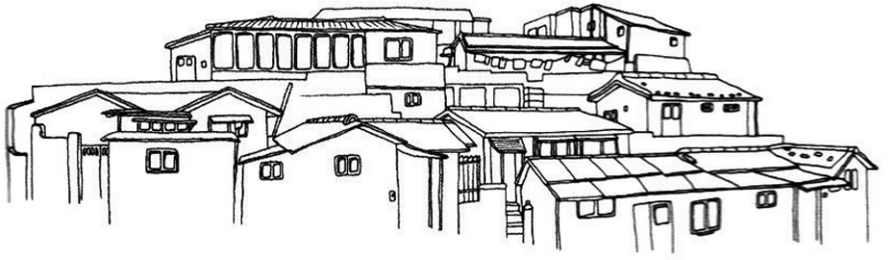
한용운 030
김용준 040
이태준 054
박태원 066
김환기 074
김광섭 086
전형필 098
김기창 108
조지훈 116
최순우 124

부록 134

문화예술가 거주지 지도 136
인물목록 142
문화유산 목록 146



성북동 마을 이야기



성북동, 성 밖 북쪽 동네

'성북동' 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한양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어영청 소속 북둔(北屯)]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한성부에 속했던 성북동은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관할 지역이 몇 번 바뀌었다.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성북동(1911년), 경성부 성북정(1914년), 동대문구(1943년)에 속하다가 해방 후 1949년 성북구 성북동으로 정해졌다.

성북동은 예로부터 물이 맑고 숲이 우거진 마을로 알려졌다. 조선 정조 때 지리지인 『한경지략(漢京識略)』과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는 성북둔 주변에 복숭아나무가 많아 봄놀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하였다.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부와 가깝지만, 서쪽으로 서울성곽, 북쪽으로 북한산이 맞닿아 있어 한적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지금은 큰 길이 나 있지만 삼, 사십년 전만 해도 그 자리에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큰 바위가 어우러진 마을이었다. 성북동을 감싸고 있는 산은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에 가려 옛 모습을 잃었다. 그러나 능선을 따라 생긴 골목길은 산길을 올라가는 듯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
길을 따라 물이 흐르고,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물이 풍부한 마을이었다. 현재 길상사에서 성북초등학교 뒤쪽으로 흐르던 개천은 물이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길어다 마셨다. 삼청각 위쪽 개천은 물이 맑아 가재를 잡으러 가기도 하였다.

영조41년(1765)에 성북동에 사는 사람들이 마땅한 생업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나라에서 마전을 하는 권리를 줬다.[1] 마전은 직물을 삶거나 빨아서 볕에서 바래는 것을 말한다. 물이 많고 넓은 돌이 있던 성북동은 마전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성북동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시장에서 거둔 광목을 마전하는 일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현재 성북초등학교 맞은 편 금녕약국이 있는 아래쪽이 마전터인데, 빨래를 한 모시와 광목 따위를 간송미술관이 있는 자리 뒤쪽 풀밭에 널어 말렸다.

길을 따라 물이 흐르고 나무와 돌이 많아 자연환경은 좋았지만 교통은 불편하였다. 사람이 다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폭이 좁은 길 옆으로 집들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려면 흐르는 개천 위에 돌로 징검다리를 놓아야 했다. 성북동은 1941년부터 자연공원보전을 위한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다. 전체 면적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에서 보호되었으나,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제약을 받아 마을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2]

그때만 해도 성북동은 맑은 개울이 흐르는 산협. 드문드문 인가 있는 별장지대였다. 아침에 파삭파삭한 모시옷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계곡을 걸어 들어오려면 그냥 옷이 후줄근 젖어버렸다. 집안에 들어 앉으면 깊은 산중에 묻힌 듯 적요(寂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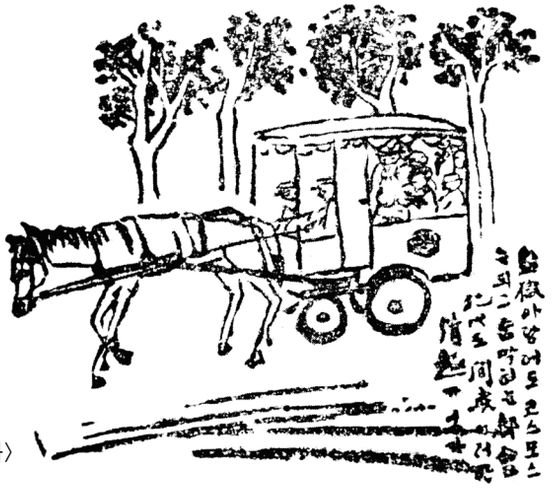
- 김향안(金鄕岸), 1944년 5월 1일 -[3]

해방 후 시내로 나가려면 혜화동 쪽으로 가는 언덕을 넘어가거나 걸어서 삼선교까지 간 뒤 역마차나 전차와 같은 교통편을 이용했다. 1940년대에는 돈암동까지만 전차가 다녔다. "땡땡땡" 하는 종소리를 내며 달리는 전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덕수교회에서 서울성곽 아래까지를 '북정골' 이라고 한다. 북녘 북(北)에 우물 정(井)을 쓰기도 하고, 정자 정(亭)을 쓰기도 한다. '북적골' 이라고도 하는데, 궁중에서 쓰는 메주를 이곳에서 만들어 메주 쑤는 소리가 '북적 북적'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영조44년(1768)에 메주 쑤는 권리를 성북동 사람들에게 주었다.[4] 선잠단이 있는 곳에서 성락원으로 올라가는 길 주변으로 가마솥을 걸고 콩을 삶아 메주를 쑤는 장소가 있었다.

서울성곽은 조선 태조 때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따라 축조한 성곽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일부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였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부서지고 없어졌다. 허물어진 성곽 주변에는 집이 들어서고 텃밭이 생겼다. 북정골 사람들은 성곽 아래에서 연을 날리며 놀았다. 연을 날리는 곳이라고 해서 '연나산' 또는 '연단산' 이라고 불렀다. 1976년부터 서울성곽을 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옛 모습을 복원하고 있다.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집 주변으로 소나무가 울창했고, 규모가 큰 집들이 연이어 있었다. 특히 성북동에서 삼청터널을 올라가는 길에 있는 버스 종점 건너편, 현재 현대빌라가 있는 자리에 정치가인 백상규(白象圭)의 별장이 있었다. 유럽식 양옥과 아담한 한옥이 있는 집이었다. 쇠창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삼인암(三人岩)' 이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진 바위가 있었다. 바위 주변으로는 소나무가 있고, 주변 풍경이 좋은 집이었다. 백상규가 납북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갔고, 개발이 되면서 소나무와 바위가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김용준 그림, 〈역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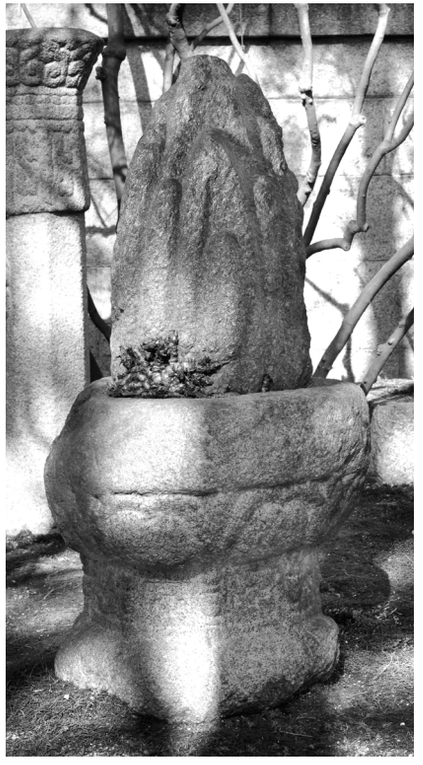
승설암은 종로 화신백화점 옆에서 '백양당서점' 을 하던 인곡 배정국이 살던 집이다. 삼인암이 있던 백상규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규모가 큰 집이었다. 안채는 기와집이고 사랑채는 초가집으로 지었다. 배정국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출판되는 책뿐만 아니라 고서(古書)들도 모아 놓았다.

집 앞에는 개울이 일년내내 흘렀고, 담 안으로 들어서면 이끼가 낀 작은 우물과 큰 오동나무가 있었다. 뜰에는 괴석이 놓여있어 보기가 좋았다. 배정국은 같은 시기에 성북동에 살던 김용준, 이태준과 교류가 깊었고, 박태원에게는 성북동 초가집을 책 인세 대신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손재형 그림, 〈승설암도〉, 종이에 수묵담채, 40.9 x 60.6cm, 1945년

배정국이 월북한 뒤 집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뜰에 있던 괴석은 뿔뿔이 흩어졌다. 산정 서세옥(徐世鈺)화백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승설암에 있던 괴석을 늘어놓은 것을 보고 사려고 하였으나 파는 이가 없어 사지 못하고 돌아왔다. 며칠 뒤 다시 가서 눈여겨 두었던 괴석을 찾으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사가서 없다고 했다. 장사치에게 누가 사갔느냐고 묻자 벙어리가 와서 사갔다고 하는데, 그이가 바로 운보 김기창 화백이었다. 후에 충북 청원에 있는 운보의 한옥에 가보니 그 괴석이 놓여있었다. 산정은 운보가 사고 남은 괴석 중에 하나를 사서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다.



승설암에 있던 괴석

북정골에는 만해 한용운이 지은 심우장과 구보 박태원이 살던 집이 있다. 박태원이 살던 집에서 심우장까지 올라가는 길가에는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집이 거의 없었다. 심우장 주변에는 큰 바위들이 나무 사이로 드러나 있었고, 넓은 바위에는 풍류객들이 글귀와 시를 새겨 놓은 것이 많았다.

'꿩의 바다' 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은 마을은 소나무가 울창하고 꿩이나 여우 같은 산짐승이 많이 살던 지역이다. 이곳은 1960~70년대부터 고급 주택과 외국 대사관저들이 들어왔다. 1971년 1월 처음 성북동에 들어온 독일 대사관저를 시작으로 일본, 호주를 포함하여 현재 31개의 대사관저가 모여 있다.[5] 꿩의 바다에서 내려와 북쪽으로 올라가면 '쌍다리길' 이 나온다. 개천에 다리 두 개가 놓여 있던 곳이라 마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처음에는 돌다리와 나무다리가 한 개씩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북동에도 집들이 점차 많아졌다. 삼선교 주변은 호박밭이 많았고, 삼선교에서 현재 성북치안센터 왼편 쪽으로 올라가면 소나무, 갈참나무들이 무성한 산이 있었다. 산이 있던 곳에 2~3m가 되는 축대가 세워지고, 그 위로 판자집들이 들어섰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성북동의 모습이 바뀌어갔다. 울창한 숲은 집을 지으면서 사라지고, 소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였다. 집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길들이 생겼다. 마을사람들이 모금을 하여 길을 내기도 했다. 현재 성북초교 삼거리부터 최순우 옛집이 있는 골목을 못 미쳐서 하천이 흐르던 곳은 개천을 복개하고 길을 낸 것이다.

예로부터 성북동에는 곳곳에 절이 많았다. 산이 깊고 조용하여 절이 들어서기 좋은 주변 환경이었다. 미륵당은 작은 절이었다. 미륵은 미래에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이다. 미륵당 옆에는 정자가 있었다. 정자 옆으로는 폭포가 있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운치가 있었다. 하루는 고종 황제가 미륵당에 몇몇 시종만 데리고 와서 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좁은 길까지 개울물이 넘쳐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고종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절에서는 미륵당 아래 마을에 살던 구 척 장신에 힘이 센 청년을 불렀고, 이 젊은 청년이 고종을 업고 개울을 건너 고종은 무사히 환궁을 할 수 있었다.

미륵당은 한국전쟁 후에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 1987년 운산 동욱(雲山 東旭) 스님이 서울 봉원사(奉元寺)에 있던 한국불교태고종의 총무원을 유치하면서 태고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과 종립기관인 동방대학원이 들어와 있다.
미륵당 위쪽으로는 기도바위가 있었다.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제물로 차릴 과일과 돗자리를 가지고 올라갔다. 바위 앞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린 세월의 흔적으로 반들반들해졌다고 한다. 후에 삼청터널이 생기고 주택단지가 되면서 사라졌다.

1853년 김좌근이 창건한 청룡암은 현재 삼청각 자리에 있던 절이다.[6] 절로 올라가는 길은 숲이 우거지고 산짐승이 오가는 깊은 산 속이었다. 대웅전과 요사채를 갖춘 규모 있는 절이었고, 우물에는 이끼가 끼어 운치가 있었다. 춘원 이광수는 청룡암의 방 한 칸을 빌리고, 그곳에 머물며 글을 썼다. 독립운동가인 임규(林圭)는 청룡암과 미륵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풍류를 즐기던 시를 여러 편 남겼다.[7]

물 건너 서로 부르며 절에 가서 만나니
봄이 오자 사물 색깔이 옛 얼굴을 나타낸다
높은 탑은 날아가는 새를 멈추게 하고
넓은 시냇물 소리는 자는 용을 일으키는 듯하다
늙은 나무는 응당 삼계(三界)의 환상을 보았을 테고
외로운 성 막는데는 한덩어리 진흙도 사용하지 않았다
절간 문은 바로 자비의 장소이니
어찌 그 당시에 밥을 먹고 난 뒤에 종을 쳤던가

임규, 「이른 봄에 청룡암에 놀러가서(早春遊靑龍菴)」

이밖에 '성라암(星羅庵)' 은 만해 한용운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곳으로, 근대시기 대표적인 신여성인 김일엽 스님(金一葉)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정법사(正法寺)는 현재 길상사 위쪽에 있는 절이다. 1939년 건봉사의 포교당으로 설립되어 1960년에 종로구 가회동에서 성북동으로 이전하였다. 칠성각 한 채만 있던 복전암(福田庵)이란 암자에 석산(石山)스님이 서대문 신학대학에 있던 황태자궁을 옮겨 대웅전을 건립하였다. '대원각' 이라는 요정은 주인인 김영한이 법정스님에게 기증하여 1997년 '길상사' 라는 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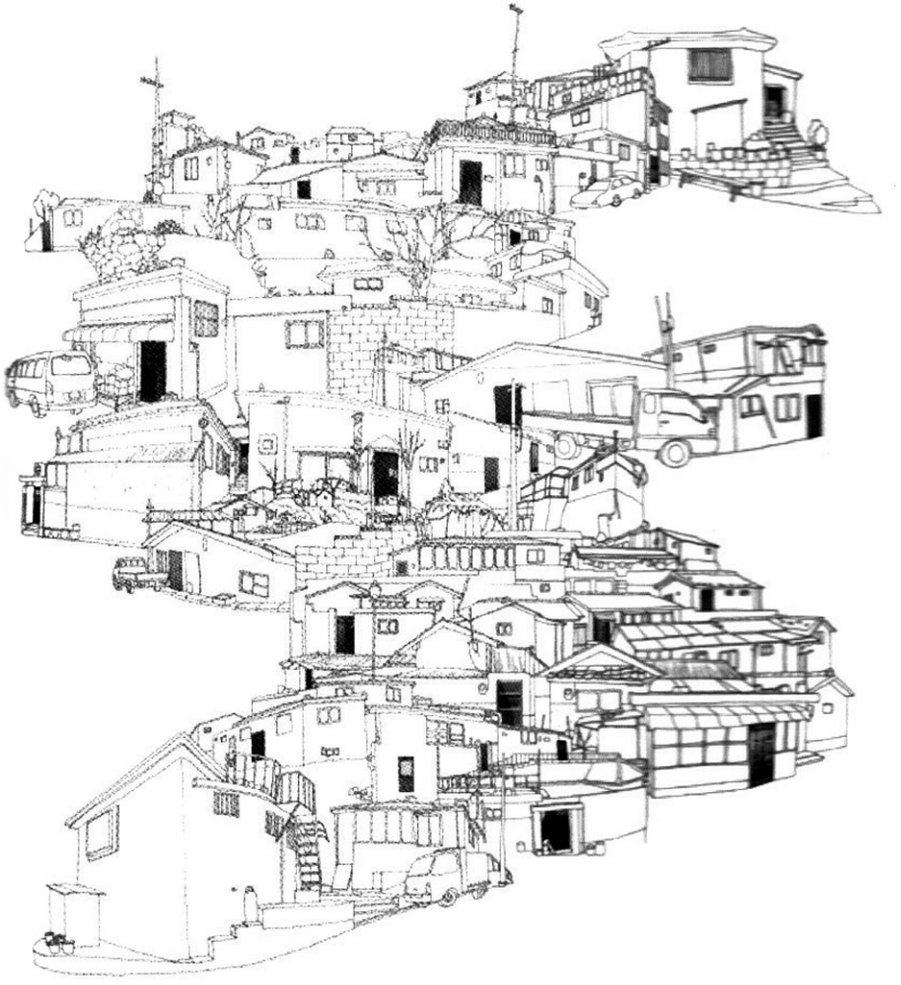
성북동에는 조선왕조 왕실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다. 성락원(城樂園, 명승 제35호)은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想應)의 별장이었는데, 후에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義親王)이 별궁으로 썼다. 작은 폭포를 만드는 개울이 있다. 연못과 약수터도 있는 물이 많은 성북동의 산세를 자연스럽게 이용한 아름다운 정원이다. 선잠단지(先蠶壇址, 사적 제83호)는 성종2년(1471)에 세운 곳으로 양잠의 창시자로 알려진 중국 왕비 서릉씨(西陵氏)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해마다 왕비가 선잠단에 와서 누에농사와 양잠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였다.

'음벽정(飮碧亭)' 은 꿩의 바다에 있던 민영환(閔泳煥)의 별장이다. 민영환은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조선후기 문신으로 일본 세력에 반대하여 자결을 한 순국지사이다. 음벽정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99칸 한옥과 양옥을 지어 놓은 아름다운 별장이었다. 정원에는 괴석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숲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연못을 만들어 놓았다. 민영환이 벼슬에 있을 때 중국 정치가인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만나 이곳에서 교류를 하였다. 후에 민영환이 죽고 혼자 이곳을 찾은 위안스카이가 민영환을 추도하며 시를 읊기도 하였다. 음벽정은 한국전쟁 후에 불 타 없어졌다.

성북동에는 근대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다.

장승업(張承業)은 김홍도, 안견과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인물화와 기명절지(器皿折枝)와 화조화(花鳥畵)를 잘 그렸으며, 기운생동(氣韻生動) 하는근대화풍을 받아들인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장승업이 지내던 작은 초가집이 성북동에 있었다. 현재 성북치안센터 뒤쪽 집들이 들어선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高羲東) 화백과 문인화가였던 김용진(金庸震) 화백이 젊은 시절 장승업과 자주 어울렸을 때 있던 집이라고 한다. 이를 들은 서세옥 화백이 직접 찾아가보니, 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랑채를 보니 방 한쪽 벽이 바깥쪽으로 물러나와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장승업이 키가 커서 누워 자면서 다리로 벽을 밀어내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 집은 개발이 되면서 기록 되지 못한 채 없어지고 말았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았던 성북동, 지금은 옛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성북동에 살던 예술가들의 자취 속에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이며 우리 나라 화단에 큰 영향을 끼친 서세옥, 전성우, 송영방, 임송희 화백 등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성북동에 살고 있다.
그럼 먼저 성북동에서 살며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한용운, 김용준, 이태준, 박태원, 김환기, 김광섭, 전형필, 김기창, 조지훈, 최순우를 만나보자.



성북동의 예술가

한용운 김용준 이태준 박태원 김환기
김광섭 전형필 김기창 조지훈 최순우

한용운 韓龍雲, 1879-1944

독립 운동가이자 사상가, 승려이자 시인으로 일제강점기에 전국을 떠돌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산 만해 한용운.

만해(萬海) 한용운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지 세 해째 되던 해 여름인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지방 아전 군속인 한응준(韓應俊)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한용운의 아명은 유천(裕天), 본명은 정옥(貞玉)이다. 용운(龍雲)은 법명이며, 법호는 만해이다.
어릴 때 글을 일찍 깨우치고 영특해서 사람들이 한용운의 집을 신동집이라 불렀다. 여덟 살이 되던 해에 한용운은 홍주목으로 이사를 했다. 한용운의 집은 가난해서 다니던 서당도 그만 두어야 할 형편이었다. 일찍이 열네 살에 부모의 뜻에 따라 천안 전씨 집안의 정숙과 혼인을 했다. 처가에서는 사위의 재주를 귀히 여겨서 선생을 들여 잠시 공부를 시켜주기도 했다. 한용운은 술을 잘 마셨는데, 어느 날 장인이 불러온 근방에서 술을 잘 마신다는 사람과 겨뤄이긴 적도 있다.
열여덟 살에 평범한 삶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충북 보은 속리사로 출가를 한다. 건봉사에서 안거 수행을 하고, 만화선사에게 당호인 '용운' 을 받는다. 유점사에서 서월화(徐月華)에게 화엄경을 배운 뒤, 일본 유학을 간다. 서른 살에는 반 년 동안 일본 시모노세키[馬關], 미야지마[宮島], 교토[京都], 도쿄[東京], 닛코[日光] 등을 순유하면서 새로운 문물은 익히고, 일본의 풍물을 몸소 체험하였다. 또한 도쿄 조동종[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 수업을 듣기도 하였다.
그 후 한용운은 불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허상을 비판, 3.1운동을 계획한다. 불교계를 대표해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나아가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을 추서하여 3.1운동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불교 근대학교인 중앙학림 학생들을 만세운동의 선두에 서게 하였고, 이 영향으로 전국의 사찰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뒤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른다.
석방 후 성북동 골짜기 셋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시작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북동은 성 밖 시골마을, 한적한 동네였다. 집을 지을 형편조차 되지 않자 이를 딱하게 여긴 당시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와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당시 잡지『불교』를 인쇄하던 대동인쇄소 사장 홍순필 등이 도움을 준다. 홍순필과 송진우가 건축비를 대기로 하였는데, 홍순필은 종로금융조합장을 겸하고 있어 건축비를 무기한 대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식산은행이 제공하겠다는 대지불하도 거절한 처지라 땅 한 평도 가진 것이 없었다.
때마침 백양사에 있던 승려 벽산 김적음이 한용운을 방문하였다. 한용운이 집을 장만하려고 하나 땅이 없어 곤혹스럽다는 말을 하자 김적음이 집을 지으려고 사둔 성북동 송림 땅(52평)이 있으니 거기에 지으라며 선뜻 땅을 내주었다. 심우장의 건축설계는 당시 중동중학의 수학교사 최규동이 하였다.



심우장

심우장.

심우는 〈심우도(尋牛圖)〉의 첫 번째 그림으로 소를 찾는 동자가 산 속을 헤매는 모습을 초발심의 단계에 비유한 내용이다. 〈심우도〉는 선(禪) 수행의 단계를 소와 목부(牧夫)에 비유하여 열 폭으로 그린 그림이다. 한용운의 아호 중에는 '목부'가 있는데, 이는 소를 키운다는 뜻이다. '목부'는 '심우'와 같은 뜻으로, '심우장'의 '심우'란 소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뜻이고, '심우장'은 불교의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집, 즉 공부하는 인생을 의미한다. 한용운이 쓴 시 「심우장」은 수양의 경지를 보여준다.

잃은 소 없건마는,
찾을 소 우습도다.
만일 잃을시 분명타면,
찾은들 지닐 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한용운, 『님의 침묵』 중-



오세창 글씨, '심우장' 현판

일본식의 호적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평생 호적 없이 산 한용운.
심우장은 북향한 산비탈에 지어졌는데 그 이유는 한용운이 남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다 하여 등을 돌려 지었기 때문이다. 또,"조선 전체가 감옥과 마찬가지인데 어찌 불을 피운 따뜻한 방에서 잠을 편히 잘 수 있겠느냐" 며 항상 냉방에서 지냈다. 한겨울 냉방에서도 몸과 마음과 자세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찌나 꼿꼿했던지 '저울추' 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차디 찬 냉돌에 앉아서 독립과 선(禪)의 세계를 오가는 저울추 같은 삶이었다.
심우장에서 1934년 첫 장편소설인 「흑풍(黑風)」과 「죽음」을 집필하여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이듬해에는 조선중앙일보에 장편소설 「후회(後悔)」를 연재하였으며 유마경(維摩經) 원고를 번역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언제나 호의를 갖고 대하였다. 한용운의 정신을 잇는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조지훈도 젊은 시절 심우장으로 한용운을 찾아가 만난 적이 있다.[8)]

심우장은 정면 네 칸, 측면 두 칸인 역(逆) 'ㄴ' 자형 집이다. 중앙에 대청 두 칸을 두고, 왼쪽인 동쪽에는 서재로 쓴 온돌방 한 칸, 오른쪽으로는 부엌 한 칸이 있으며, 부엌에서 남쪽으로 꺾여 나간 곳에 찬마루 한 칸을 두었다. 서재로 쓰던 온돌방 밖 북쪽에는 위창 오세창이 전서체(篆書體)로 쓴 '尋牛莊(심우장)' 이 걸려 있다. 방에는 이당 김은호의 포대화상(布袋和尙) 그림, 일주 김진우의 대나무 그림(竹畵), 석정 안종원의 글씨를 족자로 걸어두고 보았다. 또한 중국판 불경 등 수백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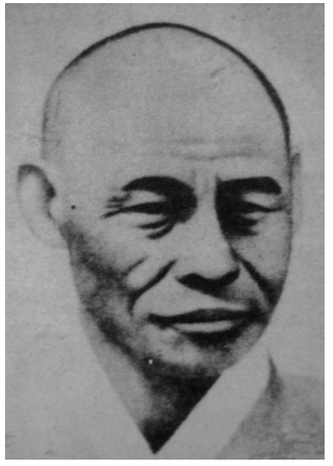
대문 안 마당 바로 왼쪽에는 소나무, 오른쪽에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각각 서 있고, 그 오른쪽 모서리에는 한용운이 손수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유한 성북동 송림의 심우장에서 만해는 큰 안정을 얻고 「산거」라는 시를 남긴다.

일제에 끝까지 굴하지 않은 독립운동가요, 시인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은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영양실조와 중풍으로 심우장에서 숨을 거둔다.

산거

티끌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잊는다 하기에
산을 깍아 집을 짓고
돌을 뚫어 샘을 팠다.
구름은 손인 양하여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가고
달은 파수꾼도 아니언만
밤을 새워 문을 지킨다.
새소리를 노래라 하고
솔바람을 거문고라 하는 것은
옛사람을 두고 쓰는 말이다.
님 기루어 잠 못 이루는
오고 가지 않는 근심은
오직 작은 베개가 알 뿐이다.

공산(空山)의 적막이여
어디서 한가한 근심을 가져 오는가.
차라리 두견성(杜鵑聲)도 없이
고요히 근심을 가져오는
오오 공산(空山)의 적막이여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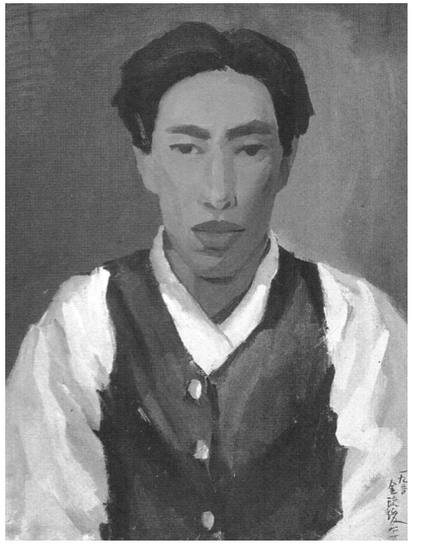
1879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1번지에서 출생
1896년 보은 속리사로 입산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탈고
1913년 『조선불교월보』에 「승려의 단결」기고
　　이때에 처음으로 필명, 자호인 '萬海' 를 사용
1919년 1월 천도교측과 3·1운동 논의. 2월 불교, 유교 측의 민족대표 포섭
　　3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 참여. 일제에 체포된 후 작성
　　8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
1921년 석방, 선학원에 머무름
1926년 회동서관에서『님의 침묵』발간
1933년 서울 성북동에 심우장을 짓고, 머무름

1944년 심우장에서 입적

김 용 준 金瑢俊, 1904-1967

근원(近園) 김용준은 경상북도 대구 출생으로 화가이자 수필가이며, 미술사학자이다. 한약재 도매상을 하는 형 김용수를 따라서 열두 살에 충북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에 있는 황간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학창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 열일곱 살에는 경성중앙고보에 입학하였고,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 에 학생 신분으로 입선을 해서 주목을 받는다. 이때 통학을 위해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65-2번지로 이사하였다.[9]

중앙고보를 마치고 일본 동경미술학교로 유학을 갔다. 동경미술학교는 일본인도 들어가기 힘든 곳으로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곳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그린 자화상과 졸업 작품은 찬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동경미술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김용준 그림,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60.8 x 45.7cm, 1930년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우고 돌아온 김용준은 우연히 장승업의 그림을 보고 동양화에 심취하게 되었다. 개성 넘치는 장승업의 그림과 기법은 서양화가 동양화의 기법보다 앞서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주었다. 서양의 모든 것이 가치있고 '모던'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당시 흐름에서 이러한 행보는 특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10] 김용준은 서양문화를 쫓아가던 일본의 미술계와 비판없이 그를 따라가던 우리나라 미술계 현실을 개탄하였다. 이때부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미술사를 연구하고 많은 논문과 평론을 발표하였다. 『조선미술대요』,『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등 김용준의 연구는 우리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이태준, 정지용 등과 교분을 맺으며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인들과 친분으로 순수 문예 동인지인 『문장』의 표지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그림뿐만 아니라 글 솜씨도 뛰어나 1948년에 간행된 『근원수필』은 아름답고 소박한 문장의 글로써 당시 최고의 수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귀국하여 중앙고보 미술교사 생활을 한다. 이때 등교를 하던 진숙경을 보고 한눈에 반해, 어느 날 그녀가 흘린 빨간 댕기에 그림을 그려 돌려준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성북동 32-2번지. 결혼 후 성북동에 살기를 꺼려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이사를 했다. 당시 성북동은 길을 따라 개울이 흐르고 개울 바닥은 노들바위였다. 그 물이 삼선교까지 흘러내렸다. 대문 앞에도 개울이 흘러서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다녔다. 개울 양쪽에는 소나무와 전나무가 울창했다. 집 뒤로 꿩이나 늑대 같은 산짐승 등이 가끔 집까지 내려오곤 했다.

석양이 내 정원에 비낄 때면 피로한 신경을 이끌고 발길이 문을 나선다. 석교(石橋)를 건너 서면 들국화 가냘프게 피어 늘어진 조붓한 길이 청룡암(靑龍庵)으로 향한다. 나는 내 산보의 유일의 동반자로 밤마다 도적을 보살피는 쫑 군[犬名]을 앞세운다. 성북동의 산보로(散步路)는 달밤이 더욱 좋다. 그러나 반드시 겨울달밤이어야 한다. 나는 가끔 찬 달밤 별들을 헤아리며 등불이 묵묵히 박힌 산 밑 길을 묵묵히 거닐기도 한다.

- 김용준, 「겨울달밤 성북동」 중 - [11]

김용준은 이태준이 붙여준 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뜻의 '노시산방(老柿山房)' 을 당호로 하였다. 노시산방에는 감나무가 많아서 온 집안에 감나무 그늘이 드리워졌다. 김용준은 감나무와 어울리는 다른 나무와 화초를 심기도 했다. 대추나무, 밤나무를 키우고 목련, 모란, 월계, 옥잠 등을 손수 만든 온실에서 길렀다. 매화와 난초를 가꾸기도 했다. 특이한 모양의 괴석을 모아 마당에 두는 것도 그의 취미였다.

"앙상한 나무들과 까치집과 싸리 울타리와 괴석과 흰 눈과 그리고 따스한 햇볕. 이것들이 노시사(老柿舍)의 겨울을 장식해 주는 내 유일한 벗들이다."

- 김용준,「冬日에 題하여」 중-



노시산방에서, 왼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김용준, 1930년대 말 - 1940년대 초

김용준이 성북동을 사랑한 이유는 성북동에 함께 살던 친구들 때문이기도 했다.[12] 일본 도쿄에서 유학할 때 이태준을 만나 친구가 된다. 이태준의 집은 김용준의 노시산방 아래쪽에 있었고 '수연산방' 이라 불렀다. 이태준의 소설집인 『달밤』의 삽화(1934)를 그린 것도 이 무렵이다. 성북동에 이웃하여 살면서 한 사람은 글을,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나눈 우정을 나눴다.

김환기와는 아끼던 노시산방을 넘길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김환기는 1913년생으로 김용준보다 아홉 살이 어리다. 또한 추상의 경향이 강한 김용준과는 다른 화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화에 민족예술의 감성을 가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같아서 서로 좋아하며 친하게 지냈다. 김용준의 아내는 수화의 결혼 예복인 모시 겹두루마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성북동 노시산방에서 지내는 동안 그린 작품 중 〈수화소노인 가부좌상〉(1947), 〈수향산방 전경〉(1944) 은 김환기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노시산방에는 김용준이 모았던 수석이 마당에 놓여있었다. 1944년 성북동을 떠나 양주군 의정부읍 가능리 고든골로 이사를 하면서 수석들은 옮기지 못하였다. 노시산방은 수필가 김향안과 결혼하여 신혼집을 구하던 서양화가 김환기에게 넘겼는데, 가지고 가지 못하는 물건들은 김환기에게 부탁하였다.
김환기도 몇 년 후에 노시산방을 떠나고, 집 주인이 바뀌며 수석은 주인을 잃고 마당 한 구석에 남겨졌다. 후에 근원을 사사한 서세옥 화백이 스승을 생각하며 노시산방이 있던 자리에 가보니 다행히 아직 남아 있었다. 집주인에게 수석의 값을 치르고 수석을 사서 성북동에 지은 그의 무송재(撫松齋) 뜰 소나무 아래 옮겨두었다.



노시산방에 있던 괴석

한국전쟁 때 월북을 한 김용준은 1967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북동에 살았던 흔적은『근원수필』에 남은 글과 그림, 제자들의 기억뿐이다. 그러나 맑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이 있던 성북동을 좋아하고, 아끼던 벗들과 성북동에 살며 여러 작품을 남긴 김용준은 성북동의 역사로 살아 있다. 그의 제자인 서세옥 화백은 노시산방 옛터를 찾아 다음과 같은 추모의 시를 남겼다.

日日雨追審老柿山房遺墟

- 山丁 徐世鈺

老柿山房 故近園 金瑢俊 先生 故宅也.

閱經浩劫 屋宇毁盡 陵移谷變 舊時物色 四顧無遺 祇有老柿一株獨支風霜而已.

(一)

濛濛烟雨滿園春.

老樹婆娑接暮雲.

風流已矣襟沾淚

誰向林泉問主人.

(二)

五十年前舊墅園. 先生奇傲此山間.

孤高落落淸眞境 捲地滔滔白眼看.

(三)

獨決狂瀾回旣倒. 親燒烘炬照迷昏.

嗟嗟畵學今垂絶 何處尋源去問津.

(四)

想到山房興不羣. 掀髯落筆起雲烟.

掃去人間喧熱氣 千秋留作畵圖看.

乙亥春 山丁遯夫 未定稿

비 내리는 노시산방(老柿山房) 옛터에서

- 산정 서세옥

노시산방은 고 근원 김용준 선생의 고택이다. 호겁을 지나면서 집은 허물어져 없어지고 언덕과 계곡은 모두 다 변해서 그 옛모습들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는데 노시 한 그루만이 외롭게 풍상을 버티고 있을 뿐이다.

(一)
뿌연 이슬비 내리는 동산
가득한 봄 빛
늙은 나무 성긴 가지
저 구름에 닿았네.
풍류(風流)는 끝나고
눈물 옷깃을 적시는데
뉘라서 이곳 찾어
옛주인 물어보랴.

(二)
오십년전 옛동산
선생께서 머무시던
이 산 기슭.
고고(孤苦)하고 낙낙(落落)하고
청진(淸眞)한 경지에서
대지(大地)를 휩쓴
도도(滔滔)한 탁류(濁流)를
흘겨 보시었더니.

(三)
홀로 거센 파도 따돌려
쓰러진 예술의 기둥 바로 세우시고
손수 횃불들어 혼미한 화단을
환히 밝혀주시더니.
아아. 화학(畵學)이 이제 끊어지려 하는데
어디서 물줄기를 찾아사
나루터를 물으오리까.

(四)
생각하니 산방(山房)에서
무리들과 다른 드높은 흥에 겨우시어
수염 흩날리며 붓을 휘두르시니
구름 일듯 연기 스미듯
세상의 시끄럽고 후덥지근한 냄새
말끔히 쓸어내시고
천추(千秋)에 그림남겨 볼 수 있게 하셨구료.

올해(乙亥)년 봄 산정(山丁)숨어사는 사내의 확정되지 않은 시고(詩稿)

연보

1904년 대구 출생
1925년 경성부의 중앙고등보통학교 졸업
1924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건설이냐? 파괴냐?〉로 입선하면서 화단에 데뷔
1926년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해 서양화를 공부
1928년 귀국. 서울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길진섭과 함께 목일회 창립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화의 기법들을 연구
　　광복 후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1948년 수필집『근원수필』출간
1950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의 임시 학장을 맡음, 월북
1950년대 월북 후 조선미술가동맹과 조선건축가동맹에 참가
　　평양미술대학의 강좌장
1967년 별세

이 태 준 李泰俊, 1904-?

소설가 상허(尙虛) 이태준은 1904년 1월 7일 강원도 철원 용담에서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구한말 개화의 흐름을 타고 아버지 이문교(李文敎)가 고향을 떠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하면서 몇 년간 외국 생활을 하였다.[13] 이문교는 개화파라는 이유로 의병들의 습격을 받아 산 속으로 피신하기도 했으며, 가족들은 의병들에게 음식을 장만하여 갖다 바치는 고초를 치르기도 했다.

결국, 이문교는 가솔을 이끌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하는데, 이때가 1909년이었다. 그렇지만 얼마 후 병으로 죽고, 3년 뒤에는 이태준의 어머니까지 산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뜬다.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된 이태준은 아홉 살에 다시 강원도 철원 용담으로 되돌아왔다. 친척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주변의 동정과 괄시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어렵게 봉명학교를 졸업하는데, 남다른 강인함과 성취욕을 지녀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상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오래도록 남아 그 후 작품에 청소년기를 회상하는 글을 남겼다.

이태준은 용담시절, 외조부와 낚시질을 하다가 그것이 갑갑하면 외삼촌들을 따라 선비소로 가 그물놀이를 하곤 했다. 이태준은 후에 도회지로 떠돌면서도 늘 이곳을 그리워했다. 용담은 이태준에게 정신의 고향이자 고달픈 삶의 귀향처였던 것이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처음 울기는 열 네 살 되는 해 봄이었다. 소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그날 졸업식장에서는 내가 제일 빛나는 아이였다. 첫째로 내려오다 졸업에도 첫째로, 우등으로 하는 아이는 나뿐이었다. 상장을 타고 답사를 하는 아이도 나뿐이었다. 나는 제일 빛나는 졸업생이었다. 그러나 졸업식이 끝난 뒤 졸업장과 상장과 상품을 안고 구경시킬 이도 없는 일가 집 사랑 윗방에 돌아와 혼자 문을 닫고 앉을 때 나는 한없이 쓸쓸하였다. 그날 처음 '나에겐 왜 어머니가 없나?' 하고 울었다. 종일 울었다."

- 이태준, 「나는 왜 어머니가 없나?」, 『무서록』 중 -

졸업 후 상경하여 배재학당에 응시, 합격했으나 입학금이 없어 등록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원산 물산객주 집에서 일할 때 안면이 있던 한 상인을 만나 그의 호의로 낮에는 상회 일을 보고 밤에는 청년회관의 야학교 고등과에 입학을 하였다.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 한 뒤로는 교장실 청소를 전담하고 학비를 면제 받으며 힘들게 생활했다.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도서관에 틀어박혀 투르게네프의 『전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톨스토이의 『부활』 등 문학작품을 탐독했다. 이때 동기생으로는 화가 이마동, 전 국무총리 백두진, 전형필 등이 있고, 선배로는 화가 오지호, 무용가 조택원, 시인 정지용, 이선근, 삽화가 이승만, 소설가 박종화 등이 있다. 스승으로는 가람 이병기 선생이 있다.

그러나 휘문고보 시절도 순탄치 않았다. 학교의 비리와 교주(校主)의 횡포에 대항해서 일어선 동맹휴교 사건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동맹휴교에 주모자로 인정되어 5년제 과정 중 4년 1학기에 퇴학처분을 받고 친구 김연만의 도움을 받아 동경 유학길을 떠나게 된다.

도쿄[東京] 조치대학[上智大學]에 입학하여서도 신문, 우유배달을 하는 등 한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생활을 했다. 이태준은 "차표가 떨어져 학교에 못 가고 비 소리와 벌레 소리에 싸인 벌판 외딴 집에 누워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작품에서 이때를 회상한다. 이 같은 어려움을 끝내 감내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한 채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로 돌아와 여러 신문사와 모교인 휘문고보에 취직을 알아보았지만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일본까지 유학을 가서 배운 지식을 우리나라로 돌아와 펼치려던 뜻은 좌절되었다. 탑골공원 주위를 서성거리며 서울 거리를 방황하는데, 이 시기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냉대를 체험하면서 작가의 역량을 축적하던 준비기라 할 수 있다.[14]

서른 살이 되던 해, 이태준은 유년기 추억이 있는 고향을 떠올리며 서울에 집을 짓는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248번지. 이곳에 있던 초가를 헐고 기와집을 저어 '수연산방(壽硯山房)' 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화여전 음악과를 졸업한 이순옥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장녀 소명과 장남 유백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린 때였다. 또 「산월이」, 「봄」, 「실락원 이야기」 등을 발표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다. 성북동에 사는 동안 조선중앙일보 학예부 기자를 하면서 이화여전에 출강하고, 박태원 · 정지용 등과 어울려 구인회(九人會)[15]를 조직하는 등 기반을 잡아갔다.

수연산방은 서남향으로 된 건물이 두 채로 된 집이다. 수연산방의 현판은 이태준이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서 탁본을 떠 직접 만들었다. 각 건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기와집에는 문향루(聞香樓), 죽향루(竹香樓)라는 현판을, 초가집에는 상심루(賞心樓)라는 현판을 걸어놓았다. 이태준이 각종 책과 자료를 두고 작품을 썼던 상심루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에는 커다란 삿갓모양으로 둥글게 짚을 얹은 초당이었다. 마루와 방 한 칸을 들였는데, 방 안에는 조촐한 탁자 위에 백자와 청자, 난을 놓고, 벽에는 서화를 걸어 놓고 감상하였다. 이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냈다. 창 밖에는 파초와 모란과 자목련을 심었다.[16]



수연산방에서, 이태준 가족, 1943년

「난」[17] 이라는 수필에서 이태준은 책이 지루하거나 붓이 막힐 때 난초 잎을 닦아주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책장과 자그마한 해석(海石), 화초는 옛 주인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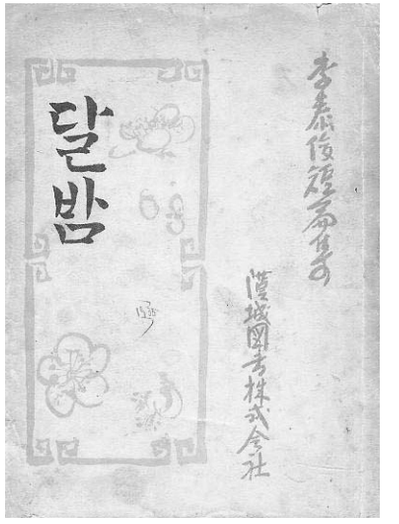
이태준은 수연산방에서 그를 대표하는 「달밤」, 「촌띄기」, 「가마귀」, 「복덕방」, 「패강냉」, 「밤길」, 「토끼이야기」등 주옥같은 작품을 써냈다.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은 대부분 이태준의 안정된 생활을 반영하듯이 간결하고 치밀한 문장과 빼어난 분위기, 인물묘사를 특징으로 한다.
이태준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성북동 서남쪽 능선을 따라 쌓인 산성을 즐겨 바라보았다.

"산(山)마라에는 산(山)봉오리 생긴대로 울멍줄멍 성벽(城壁)이 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여 있다. 솟은 성벽(城壁)은 아침이 첫화살을 쏘는 과녁으로 성북동(城北洞)의 광명(光明)은 이 산상(山上)의 옛 성벽(城壁)으로부터 퍼져나려오는것이다. 한참 쳐다 보노라면 성벽(城壁)에 드리운 소나무 그림자도, 성(城)돌 하나하나 새이도 빤-히 드러난다. …멀-리 떨어지는 석양(夕陽)은 성(城)머리에 다어선 불처럼 붉다. 구불구불 산(山)등셍이로 달려올라간 성곽(城郭)은 머리마다 타는것이, 어렸을때 자다말고 나와 본 산화(山火)의 윤곽(輪廓)처럼 무시무시 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도 잠시 꺼지는 석양(夕陽)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고요히 바라보면 지나가는건 그저 바람이요 구름뿐이다. 있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것, 그런것은 생각하면 이런 옛성(城)만도 아닐것이다."

-「성」, 『무서록』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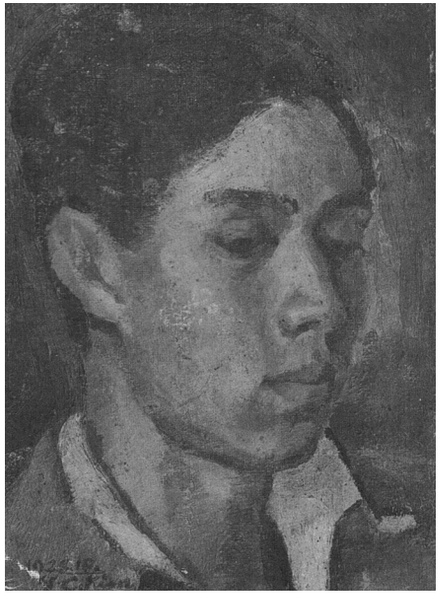
1926년 일본에서 유학할 때 교류했던 동갑내기 김용준과 인연은 성북동에서도 이어진다. 이태준이 성북동에 자리 잡은 얼마 후 김용준도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다. 수연산방과 노시산방, 서로의 집을 오가며 문학, 그림, 미술사 등에 대한 지식을 서로 나누었다. 늙은 감나무가 서너 그루 있는 김용준의 집을 보고 이태준이 직접 '노시산방' 이란 당호를 붙여주기도 하였다. 김용준 역시 이태준의 「달밤」, 「복덕방」, 「돌다리」의 표지장정을 해주는 등 성북동, 같은 동네에 살며 남다른 우정을 쌓고 각별하게 지냈다.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 가혹했던 식민통치와 언어말살의 폭압 아래 식민지 울분을 머금은 채 예술혼을 불태운 지식인이자 예술적 동반자였던 것이다.

해방 후 이태준은 그때까지 보인 문학적 태도와는 달리 좌익계열의 문학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해방전후』를 발표하면서 일대 사상전환을 보이고 1947년 7월경 월북했다. 이후 이태준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다. 순수문학의 기수로 불릴 만큼 대부분이 이념적 색채가 없는 순수문학 작품을 썼던 이태준이었다. 이는 당시 문인들에게 충격이 될 만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후 북한에서 행적이나 사망 시기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김용준 장정『달밤』, 을유문화사, 1947년
김용준 장정『복덕방』, 을유문화사, 1934년[18)]



연보

1904년 강원도 철원 용담 출생
1909년 개화파였던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
1921년 4월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924년 휘문고등보통학교 동맹휴교 주모자로 4학년 1학기에 퇴학. 일본유학
1925년 일본에서 단편 「오몽녀」를 『조선문단』에 투고하여 입선
1927년 11월 상지대학을 중퇴하고 귀국
1930년 이화여전 음악과 출신의 이순옥(李順玉)과 결혼
1933년 박태원, 이효석 등과 '구인회(九人會)' 를 조직.
경성부 성북정 248번지로 이사
1943년 강원도 철원 안협으로 낙향. 광복 전까지 이곳에서 칩거
1947년 월북

박 태 원 朴泰遠, 1909-1987

소설가 구보(仇甫) 박태원은 1909년 서울 수중박골(경성부 다옥정 7번지)에서 태어났다. 박태원의 맨 처음 이름은 박점성(朴點星)이었는데, 등 한쪽에 커다란 검은 점이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태원' 이라고 이름을 고친 것은 1918년 8월 14일이다.

박태원은 동시대의 어느 작가보다도 서구화, 현대화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도시화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청계천변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주변 환경이 박태원이 문학작품과 삶 속에서 근대화를 추구한 배경이 되었다. 박태원의 집안 환경을 살펴보면, 박태원의 아버지는 제약업에 종사하였고, 숙부 박용남은 한국인 최초의 개업의였다.

박태원이 문단에 등단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숙부 소개로 만난 당시 문단에서 인정받고 있던 백화 양건식[19] 의 도움이 컸다. 고모 박용일 역시 신교육을 받은 인텔리 여성으로서, 춘원 이광수의 아내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녀는 박태원이 이광수에게 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데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박태원이 맨 처음 발표한 글은 「달마지」[20] 로, 제일고보 2학년 때 잡지 『동명(東明)』 '소년칼럼' 난에 당선된 작품이다. 박태원은 스무 살 가을 도쿄[東京]로 건너가 호세이대학[法政大學] 예과에 입학하였다. 다음 해 귀국하여 문단에 나와 이태준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들어간다.

귀국 후 일본에서 유행하던 우스꽝스런 '대모테안경' 과 '갑빠[河童;かっぱ] 머리' 를 하고 경성을 활보하고 다녔다. 이를 박종화는 마땅치 않게 생각하였고, 박태원은 그 이유를 글에서 밝혔다.

박종화 : "저 차림으로는 물 건너 새롭고 괴팍한 불건전한 냄새나 본떠서 풍겨놨지 어떻게 정말 조선 문학을 살찌게 해 줄 것이냐."
박태원 : "머리에 대한 나의 악취미는 물론 단순한 악취미에서 출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참말 까닭을 찾자면 나의 머리 터럭이 인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억세다는 것과 내 천성이 스스로 구제할 도리가 없게 게으르다는 것이다."

- 박태원, 「여백을 위한 잡담」 중 -

머리카락이 뻣뻣해 짧으면 고슴도치가 되고, 길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지 않아 코를 덮고, 눈을 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마 위에다 가지런히 추려 가지고 한일(一)자로 잘랐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필이면 유행하던 갑빠 머리와 닮게 되었다는 것이다.
1933년 이태준, 이상, 정지용, 김기림 등과 함께 '구인회' 에 가입, 활동하였고, 다음 해에는 조선중앙일보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연재했다. 그리고 1938년에 최초의 단편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내놓으면서 "가르치심을 받아옵기 십년 이제 이른 첫 창작집을 세 번 절하와 삼가 춘원 스승님께 바치옵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박태원이 문단에 진출하는데 이광수와 양건식, 이은상에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태원은 당시 서울 생활 풍습과 서울말을 작품 속에서 가장 잘 표현하여 '경아리 문학' 을 수립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태원은 '구인회' 동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상과 각별하였다. 박태원은 이상을 모델로 「애욕」, 「제비」, 「염천」등의 작품을 썼고, 이상은 '하융(河戎)' 이란 이름으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상 삽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21]

박태원은 스물다섯 살에 김정애와 결혼하여 5남매를 두었다. 자상한 가장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돈암동 487-22에 대지를 마련하고 직접 설계한 집을 짓기도 했다. 새로 지어서 좋고 넓은 집이지만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서 바쁘게 양동이를 갖다 대야했다. 여름이면 기왓장이 속을 썩이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외풍도 심한데다 심지어 도둑까지 들었다.

이에 백양당 출판사에서 약산 김원봉(若山 金元鳳)의 항일독립투쟁사인 소설『약산과 의열단』을 내고 인세 대신 성북동에 있는 집을 받아 이사를 했다. 백양당 서점의 주인인 인곡 배정국은 박태원의 친구였는데, 그 역시 박태원의 집 바로 개천 건너에 승설암이라는 집을 짓고 살았다.

성북동 230번지는 초가집이었다. 집 뒤편에는 골짜기가 있어 비가 오면 폭포를 이뤄 내려왔고, 마루의 뒷문을 열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박태원은 직접 시골에서 비싼 값을 치루고 싸리를 구해 담을 둘러치고 대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북동에서는 싸리문 집으로 통했다.

마당 꽃밭에는 채송화를 심고 마당 가운데는 모란 한 그루를 심었다. 앵두나무와 복숭아나무도 있어서 때가 되면 앵두와 복숭아를 따먹기도 하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도 하였다.
우물 옆 소나무에는 아이들을 위해 그네를 만들었다. 개 한 마리와 거위를 한 마리 키웠는데 거위는 낯선 사람이 오면, 개보다 먼저 꺼욱꺼욱하면서 고개를 길게 빼고 울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옆에는 텃밭을 만들어 푸성귀를 심었다.

박태원은 성북동에 사는 동안『소년삼국지』,『소년김유신』,『어린이일기』등 아이들은 위한 작품을 많이 썼다. 항상 집에서 아이들에게 원고를 읽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쓴 책이나 학교생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일이 없는 날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삼선교에서 역마차를 타고 종로까지 나가 외식을 하기도 하였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글로 남겼는데,『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중「채가」는 첫째 딸 설영이 유치원에 갔을 때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박태원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서울에 온 이태준, 안희남, 오장환[22] 등을 따라 갑자기 월북한다.[23] 월북 작가이기에 지금까지도 박태원의 생애나 문단활동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월북 작가 중 만년까지 활동을 했고, 북한 문학계에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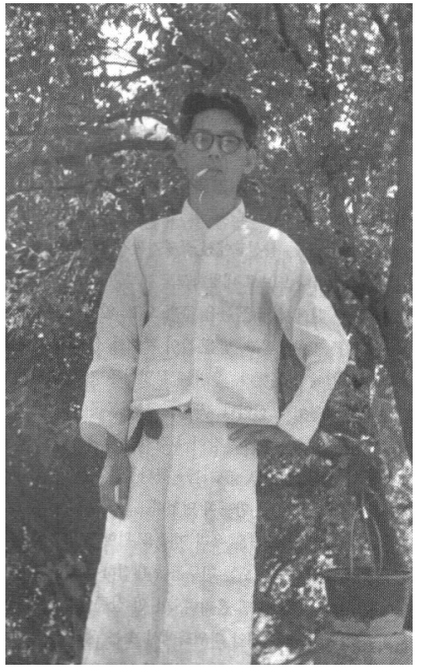
연보

1909년 서울 다동 7번지에서 출생
1923년 13세, 글을 최초로 발표(『동명』에 「달마지」 당선)
1926년 『조선문단』「누님」으로 등단. 필명 박태원(泊太苑, 본명 朴泰遠) 사용
1929년 필명 몽보(夢甫)를 쓰기 시작
1933년 구인회 가입
1940년 돈암동 487-22에 대지를 마련하고 설계를 하여 직접 집을 짓고 이사
1948년 성북동 230번지로 이사
1950년 한국전쟁 중 월북
1986년 북한 평양에서 별세

김 환 기 金煥基, 1913-1974

수화(樹話) 김환기는 서양화가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김환기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1936년 니혼 대학 미술학부를 마치고 도쿄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930년대 후반부터 추상미술을 시도한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이다. 해방 후에는 산, 강, 달 등 자연을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1947년에 김환기, 유영국, 이규상 등이 모여서 '신사실파' 를 결성하였다. 1948년에 1회 창립전을 열었고, 다음해에는 장욱진이 가세하여 2회 전시를 하였다. 화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사실을 해석한 '새로운 사실' 이라는 순수 창작의 열정은 이후 김환기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24]

김환기가 성북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근원 김용준과 인연 때문이다.[25] 김환기와 김용준은 나이 차이가 아홉살이나 되었지만 서로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이였다. 1944년 김향안과 결혼한 김환기가 신혼집을 구할 때 김용준과 상의를 하고 마침 이사를 가려던 그의 집을 샀다. 김용준이 '노시산방' 이라 하였던 집은 주인이 김환기로 바뀌며 '수향산방(樹鄕山房)' 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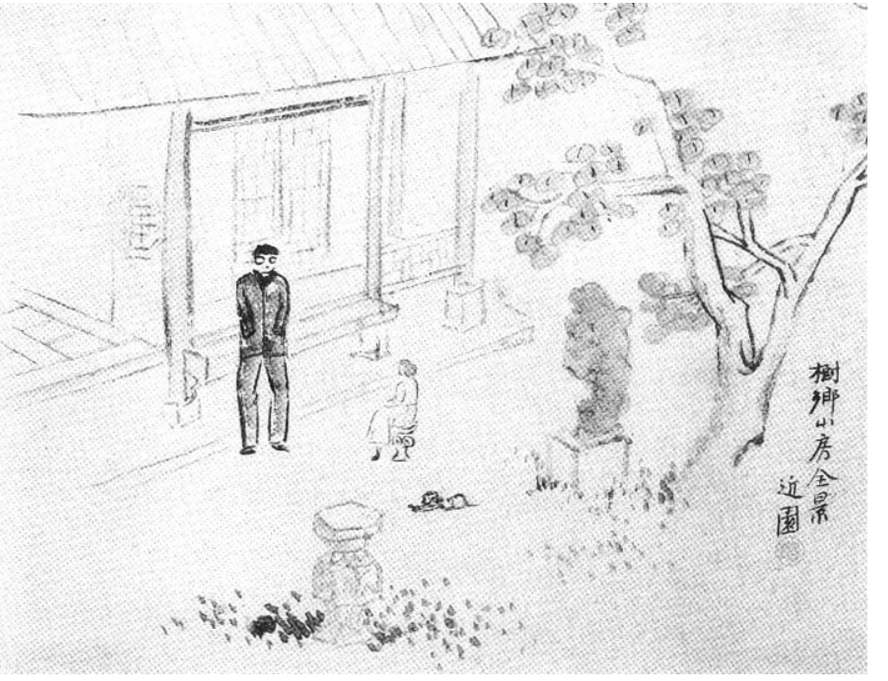
성북동 32-2번지 자택 정원에서, 김환기

김환기의 호인 '수화' 와 아내의 이름인 '향안' 에서 한 자씩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수향산방은 한옥으로 안방, 대청, 건넌방과 안방에 붙은 부엌, 아랫방, 광으로 된 'ㄱ' 자 집이었다. 건넌방은 누마루를 달아서 사랑채의 구실을 하게했고 방마다 옛날 창문짝들을 구해서 맞추어 놓았다.

200평 남짓 되는 양지바른 산마루에 지은 집이라 바로 옆에 개울이 있고, 후원에는 여러 그루의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다. 앞마당에는 괴석을 두었고 그 옆에는 풍란이 피었다. 여름엔 파초가 잘 자라도록 온실도 만들었다. 운치 있게 쌓아 올린 돌담장에는 앵두와 개나리가 있었다. 앞마당 층계를 내려가면 우물가에는 목련도 피었다.[26]

1947년 어느 날 김용준이 수향산방에 찾아온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환기는 먹과 종이와 벼루를 준비한 다음 김용준에게 그림 한 점을 부탁한다. 김용준이 웃으면서 즐겁게 그려준 그림은 바로 김환기의 모습이었다. 〈수화소노인 가부좌상(樹話小老人跏趺坐像)〉, 이 그림을 김환기 부부는 족자를 해서 대청에 내다 걸고 보며 즐거워했다.[27] 김용준은 키가 큰 김환기와 작고 아담한 김향안이 수향산방 집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김용준 그림, 〈수향산방 전경〉, 종이에 수묵과 담채, 24 x 32cm, 19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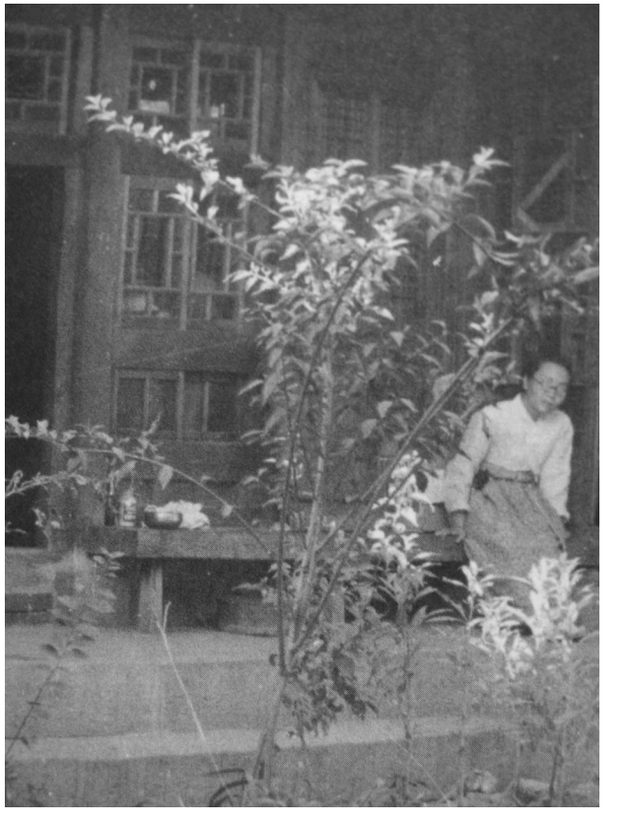
하지만 성북동 집이 가족이 살기에 좁고, 서울에 가면 도시에 살 줄 알았던 어머니는 왜 시골에 사느냐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김환기 가족은 1948년에 원서동 골목 조금 들어선 곳에 창덕궁 후원이 내려다보이는 이층 양옥으로 이사를 갔다. 그해 여름 온 가족이 열병을 앓는다. 시내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데 가족들이 동의하여 다시 성북동 274-1로 이사를 했다.

새로 구한 성북동 집은 제법 격식을 차려 정성들여 지은 'ㅁ' 자 형의 한옥이었다. 육간대청의 뒷문을 열면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사랑채를 분리해서 조그만 안마당도 있는 집이었다. 나중에 사랑채를 허물어 화실을 만들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김환기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을 간다. 낯선 부산에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았다. 3년 후 돌아온 성북동 집. 전쟁 통에 집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과 성북동의 익숙한 풍경에 편안함을 느꼈다.

성북동 생활에 만족했던 김환기는 성북동에 대한 애정을 담은 「산방기」라는 수필을 발표하기도 한다.[28] 성북동은 교통이 불편한 것이 흠이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성북동이 좋은 것이라 역설한다.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에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성북동은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운다. 달도 산협의 달은 월광(月光)이 다르다."

- 김환기, 「산방기」 중 -



성북동 집에서 김향안

한국의 고아(高雅)한 멋을 아끼는 김환기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특히 백자를 좋아하여 희고 둥근 조선 백자가 그의 수향산방 곳곳에 놓여있었다. 피난을 가기 전부터 김환기의 화실은 도자기와 목기로 가득 찼다. 김용준이 "어찌된 것인지 저 김환기는 항아리만을 사 모으고 좋아 어쩔 줄 모른다"고 애정 어린 핀잔을 늘어놓을 정도였다. 백자는 마당에서 여름 장마철에는 비를 담았고 겨울에는 얼어서 깨지기도 했다.
그가 사는 집에도, 그가 그린 그림에도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와 달, 여인, 꽃, 새, 사슴 등을 그린 〈정원〉(1957), 〈항아리〉(1958), 〈여인과 매화와 항아리〉(1956), 〈항아리와 새〉(1957) 등이 대표적이다. 백자를 통해 한국미의 원형을 탐구한 김환기는 여기에 성북동의 자연을 더하여 아름다운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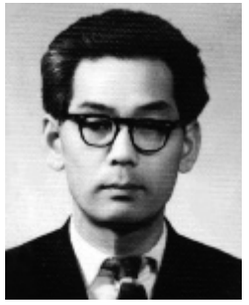
성북동에 사는 동안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다. 1960년에는 홍익대에 미술대학이 건립되면서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학교와 가까운 마포에 집을 구하면서 성북동을 떠났다. 홍익대 교수를 하던 중 몇 년간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과 개인전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1963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했다. 미국 뉴욕에서 작품활동을 할 때 한국일보 미술대상전에 사각형의 무수한 점을 그린 단색조의 작품을 출품하여 대상을 받고 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김환기의 작품 경향은 도자기를 중심으로 산, 학, 매화, 사슴으로 압축되어 간결하고 밀도 있게 구성 됐다.[29]

"우리들은 우리의 고전미술에서부터 계통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소. 그렇잖고 막연히 전통만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소." [30]

파리에 있던 건축가 김중업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은 김환기가 우리 전통에 뿌리를 둔 고유한 예술 세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미술사학자이자 평생 박물관인으로 산 최순우와 만남으로 이어졌다. 최순우는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현대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김환기는 서양화를 그리지만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진 화가였다. 김환기는 최순우에게 성북동에 이사를 오라고 몇 번이나 권하기도 하였다.
1974년, 뉴욕에서 생을 마친 김환기를 기리며 유족들이 미술관 건립을 계획한다. 유족들은 김환기가 좋아하던 성북동에 미술관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예전 모습을 잃은 성북동에 실망을 했다. '수향산방' 과 비슷한 지형과 분위기를 찾아 간 곳이 부암동이었고, 그곳에 '환기미술관' 을 지었다. 김환기도 수향산방도 지금은 성북동에 없지만 그 시절 그린 작품들이 남아 화가의 마음을 전한다.



성북동 32-2번지 아틀리에



연보

1913년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출생
1936년 니혼대학[日本大學] 미술학부를 마침, 도쿄에서 개인전을 개최
1940년대 후반 해방 후 신사실파를 창설
1944년 수필가 김향안과 결혼
1956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서 개인전
1957년 파리 · 니스 · 브뤼셀 등에서 개인전
1959년 귀국하여 홍익대 교수 · 초대 예술원 회원
1963년 제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회화부문 명예상 수상
1973년 한국일보주최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대상 수상
1974년 뉴욕에서 별세

김 광 섭 金珖燮, 1905-1977

시인 이산(怡山) 김광섭은 1906년 9월 22일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어대진(漁大津) 송신동(松新洞)이라는 동해 바닷가 어촌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 생계는 한약국을 경영하는 할아버지가 맡아 꾸렸고, 아버지는 유생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북간도 두도구(頭道溝)로 건너갔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일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집 뒤에 있던 서당에 일본 헌병대가 서당 선생을 내쫓고 들어섰다. 칼을 찬 누런 복색을 한 일본 헌병과 애국청년과 독립군이 헌병대의 고문에 못 이겨 지르는 비명 소리는 김광섭의 뇌리에 깊게 남았다. 이 사건은 김광섭이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하여 중동학교를 졸업한 뒤 열여덟 살에 일본에 건너가 도쿄[東京]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영문과에서 공부를 한다.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 귀국하여 모교인 중동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스물일곱 살에는 '극예술 연구회' 에 참여하여 서항석, 함대훈, 모윤숙, 노천명 등과 친분을 쌓는다. 이때부터 신문, 잡지에 시와 평론을 발표했고, 1938년에 첫 시집 『동경』[31] 을 냈다. 이후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학생들에게 민족 사상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년 8개월 동안 사상범으로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김광섭은 민중일보 편집국장, 미군정청 공무국장, 초대 이승만대통령 공보비서관, 경희대학교 교수, 세계일보 사장 등을 지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력을 보였지만 정작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저곳 거처를 옮기며 살았다. 1946년부터 서울 운니동 신림동, 주교동, 동소문동, 돈암동, 성북동, 미아동, 중화동 등 서울의 중심지와 변두리를 전전하였다.

성북구 성북동 168의 34. 1960년대 5년여 동안 살았던 이곳은 김광섭이 거쳐 간 많은 주소지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32] 2남 2녀를 둔 김광섭은 커가는 자식들을 위해, 말년생활을 위해 1961년 성북동 산기슭에 집터를 사고 새집을 짓는다. 가파른 바위 언덕위에 자리 잡은 집은 프랑스 유학파 출신으로 한국 건축에서 큰 업적을 남긴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하고 지은 집이다. 3m가량 축대를 쌓고 60여 평의 대지에 지은 2층 기와집이다. 이 집은 김광섭의 생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집에 살 때 뇌출혈로 쓰러진 후유증을 앓으면서 대표작인 「성북동 비둘기」를 쓴 것이다.

1964년 운영하던 『자유문학』이라는 잡지가 재정이 어려워지며 휴간되자, 김광섭은 매우 상심하였다. 같은 시기에 경희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서울운동장에서 경희대와 고려대의 야구경기 구경을 하다가 그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오랜 혼수상태를 겪고, 여러 해를 병고와 싸우면서 인생관에 변화를 보였다. 「성북동 비둘기」나 「생의 감각」 모두 이 시기에 쓴 것이다. 이전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시나 일제하의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 오는 고독, 허무, 불안이 반영된 작품을 썼다. 투병 이후에는 시어도 일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사물을 따뜻이 포용하는 원숙한 경지의 작품을 썼다.

투병 중 따스한 훈풍이 불고 꽃이 피어 있는 어느 날이었다. 김광섭은 성북동 자택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좋은 날씨인데도 뇌출혈로 쓰러진 자신을 돌아보며 시적 생명은 끝났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 때, 하늘을 바라보다 아침마다 하늘을 휘익 돌아 나는 비둘기 떼를 보게 되었고, 이에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쓰게 되었다.

"시란 특수한 것이어서 고요하고 안정되고 사고가 맑아야 된다. 결국 병이 내게 시를 쓰게 한 것이다. 시만 생각한다면 병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8년이 시의 진경(進境)을 불러오게 했다."

-이산(怡山)과의 대화 중에서-

"나는 뇌출혈로 메디칼센터에 입원하여 오랜 혼수상태를 겪으면서 사경을 헤맸어요. 그 후 성북동 나의 집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따스한 훈풍이 불고 꽃이 피어 있었어요. 뇌출혈이란 말을 듣고 내 시적 생명은 끝났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었지요. 그 때,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침마다 하늘을 휘익 돌아 나는 비둘기떼를 보게 되었어요. 「성북동 비둘기」의 착상은 거기에서였지요. 돌 깨는 소리가 채석장에서 울리면 놀라서 날아오르는 새들, 그러나 저것들이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인가. 돌 깨는 산에서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고 집들은 모두 시멘트로 지어서 마음 놓고 내릴 장소도 없는 저것들이란 데 생각이 머물렀어요." 33)

- 김광섭 인터뷰 중 -



성북동 자택에서, 외손자와 함께

성북동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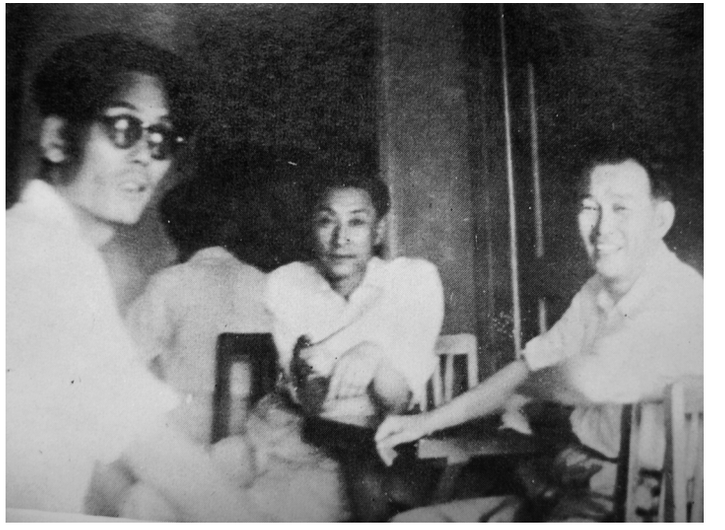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一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를 입에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시에는 196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으로부터 점차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 축복의 메시지 전달자라는 일반적인 상징을 떠나 인간의 각박한 현실을 비추는 겨울이 되었다.
김광섭은 서양화가인 수화 김환기와 친분이 있었다. 김환기는 김광섭의 시 중 「저녁에」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우정이 문학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뛰어난 예술작품이 된 것이다.

다사다난한 역사 속에서 72세로 인생을 마감한 김광섭. 한 세대 앞선 시인이지만, 시에 담긴 다양한 주제와 현대적 감수성은 한국 현대 시사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자신의 다양한 체험을 시에 다각도로 용해시켜 아름다운 언어와 운율로 노래한 시인. 그의 시는 그 자체로도 빛이 나지만, 생애 또한 우리에게 삶의 의지를 일깨워 준다.



명동에서, 김환기, 이헌구와 함께, 1956년



연보

1905년 함경북도 경성군 어대진 송신동에서 출생
1929년 제1고등학원을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입학
1938년 제1시집 『동경』을 발간
1941년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는 이유로 일본경찰에 체포, 구속
1944년 3년 8개월 만에 출옥
1947년 전국 '문화단체총연합회' 출판부장에 취임, 민중일보 편집국장직을 맡음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에 취임
1952년 경희대학교 교수로 취임
1956년 『자유문학』 창간
1958년 세계일보 사장에 취임
1964년 『자유문학』이 운영난으로 휴간
1969년 제4시집 『성북동 비둘기』(범우사) 발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1977년 별세

전 형 필 全鎣弼, 1906-1962

간송(澗松) 전형필은 1906년 7월 26일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당시 종로4가 일대는 '배우개' 라고 하였는데 전형필 집안은 종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조선시대는 장사를 천하게 여겼으나 전형필 집안은 상업에 일찍 눈을 떠 배우개의 상권을 시작으로 규모를 늘려나갔다. 그 이득으로 왕십리, 답십리, 청량리 등 서울 주변을 비롯해 황해도 연안, 충청도 공주 등 전국 각지에 농토를 사서 증조부인 계훈 시절에는 수만 석을 추수하는 갑부가 되었다.

전형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유달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성과 감성이 출중해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한꺼번에 집안 어른들의 죽음을 겪고 난 후 말수가 적어지고 생각이 많은 소년기를 보냈다.

열여섯 살에 휘문보통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열여덟 살에 결혼을 한다. 청구 이마동(靑駒 李馬銅)과는 동창이었는데, 후에 화가가 된 이마동보다 전형필의 미술성적이 더 좋았다. 이때 미술교사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춘곡 고희동선생을 만난다. 고희동은 일본 유학 후 민족문화의 말살을 안타까워하여 동양화로 전환한 화가이다. 그 무렵부터 전형필은 서적을 구입하는 취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1926년 휘문고보를 졸업한 전형필은 곧바로 도쿄[東京]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법학과에 입학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에서 보낸 유학생활 동안 깊은 갈등과 절망감을 맛보았다. 어느 날 고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간송은 일본학생에게 식민지인 조선인에게도 그런 책이 의미가 있느냐는 조롱을 받았다. 그때 망국노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낀 전형필은 후에 그 일을 글로 남기기도 하였다.

대학교 3학년 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에 돌아온 간송은 은사인 고희동 선생을 만나 유학 생활을 하며 겪은 울분을 토로한다. 이때 고희동 선생의 소개로 전형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운명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추사 김정희 학문의 적통을 이어받은 당대 최고의 감식안이자 서예의 대가인 오세창이다. 이 만남은 전형필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오세창이 쓴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을 보면서 문화재에 대한 안목과 올바른 관점을 길렀고, 이후 오세창에게 직접 글씨와 서화를 배운다.

전형필은 문화재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정신적 가치가 깃든 일종의 유산임을 깨닫는다. 소중한 문화재를 일본에 빼앗긴다는 것은 민족의 혼이 말살되는 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잃는 것이었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한 전형필은 오세창의 도움을 받아 우리 문화를 공부하고,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문화를 연구하는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과 혜곡 최순우 등을 만나게 된다.

스물일곱 살 때 전형필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에 있는 양옥과 그 주변 땅을 사들였다. 다음 해 그 집을 북단장(北壇蔣)이라하고, 1938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인 보화각(葆華閣)을 건립하여 상량식을 했다. 보화각 상량식장에는 청천 이상범, 월탄 박종화, 춘곡 고희동, 석정 안종원, 위창 오세창, 심산 노수현, 청구 이마동, 이순황 등 문화 · 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북단장은 당대 예술인들이 교류하는 곳이자 예술가들의 아틀리에였다. 후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를 앞두고 화가들이 대작(大作)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이 없자 전형필은 북단장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심산 노수현이나 청전 이상범 등이 보화각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1938년은 일제의 폭압정치와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극에 달할 때였고 대동아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식량 배급표가 없는 사람은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보화각을 짓는 공사는 조선 최대의 사건이었다. 보화각을 세운 것은 일제에 대한 문화적 저항의 표시이기도 했다.



오세창 글씨, '보화각(葆華閣)'



완공된 보화각, 1938년

보화각은 동경대 건축과를 나온 박길용이 설계했다. 박길용은 조선인 최초로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가이다. 보화각은 전쟁을 겪고 난 뒤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대리석이며 전시실 바닥은 당시는 구하기 힘든 단단한 합판이었다. 유물을 볼 수 있게 만든 전시함은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었다. 수입 가구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외부 장식을 최대한 하지 않고, 세련되고 우아한 형태의 설계를 추구했다. 박길용은 전형필이 원하는 수준의 건물을 완성하려면 일본에 있는 건축자재상을 통해 자재를 수입하고 지하에 수장고도 만들어야 하니, 최소 3년이 걸린다고 보았다. 웬만한 건물을 짓는 데는 6~8개월이면 충분했던 당시였지만 최고급 자재로 튼튼하고 우아한 건물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 오세창과 함께 문화재를 본격적으로 수집할 계획을 세울 무렵 의학도 김승현과 이순황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전형필이 형제처럼 의지했던 사람들로 특히 이순황은 평생 전형필 곁에서 그를 도왔다.
전형필은 북단장과 보화각을 세운 후 이순황을 비롯한 몇몇 사람을 앞에 내세워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문화재를 구입할 때 절대 값을 깍지 않아 고서화 수장가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던 전형필은 주인이 제대로 가치를 몰라 값을 싸게 불러도 말없이 서너 배 돈을 지불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구하면 먼저 전형필에게 보이려 했다. 수많은 일급 문화재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재를 향한 애정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관훈동에 있던 조선 말기에 세워진 고서점인 한남서림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이순황을 통해 인수했다. 한남서림을 문화재 수집의 창구로 금보(琴譜, 보물 283호), 동래선생교정 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국보 149호), 동국정운(東國正韻, 국보 71호) 등을 수집했다.

이 시기, 일본은 조선어 사용 금지와 조선어학회 탄압 사건 등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3년 6월 전형필은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전형필에게 천원이라고 했지만 전형필은 “귀한 물건은 제 값을 치러야 한다”며 당시 집 열 채 값인 만원을 주고 천원은 수고비로 주고 사들였다. 혹시라도 일제에 빼앗길 것을 걱정하여 비밀리 보관하다가 해방 후 공개하였다.

한편, 전형필은 민족교육이 절실한 문제임을 통감하고 1940년 6월 재단법인 동성학원을 설립한다. 그리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여 육영 사업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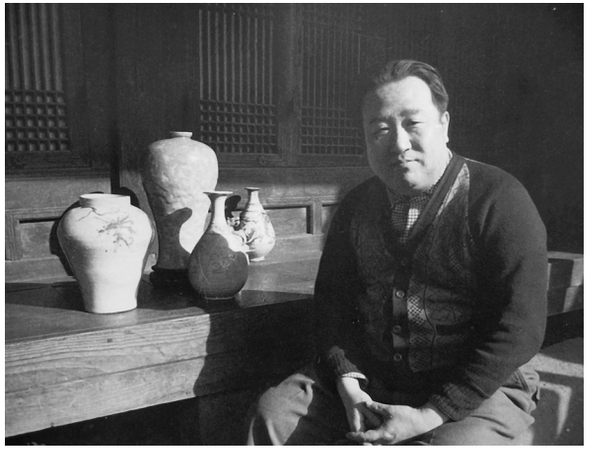
1945년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재는 일제 강점기보다도 더 참담한 파괴를 당한다. 인민군이 진주했을 때 북단장은 기마부대가 주둔하여 아름다운 정원은 폐허가 되었다. 보화각 소장품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 옮기려고 큰 목통 속에 아무렇게나 포장 되어 있었다. 인민군은 전문가인 손재형과 최순우에게 포장과 목록정리를 시켰다.
두 사람은 인민군이 소장품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매일 물건을 싸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손재형은 멀쩡한 다리에 붕대를 매고 다리를 다쳤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했다. 보화각 지하실에 있던 위스키를 이용해 담당자들을 매수하여 작업을 하지 않고 버틴 적도 있었다. 이렇게 꾀를 써서 물건의 정리를 피하니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할 때까지 포장되어 상자에 보관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결국 인민군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953년 서울 수복 후 보화각에 돌아오니, 아궁이 앞에는 고서(古書)들이 불쏘시개 감으로 산처럼 쌓여있고, 벽지나 창호지로 쓰려는 사람들이 책을 뜯어가기도 하였다. 몇 트럭분의 고서적들이 중앙시장에 나와 쌓여 있어서 다시 사오기도 했다.

일제 암흑기 36년 동안 전 재산을 다 바쳐 민족문화를 보호하고자 수집했던 수많은 문화재들이 우리 민족의 손에서 파괴되는 광경은 허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 후 전형필은 문화재 보존위원으로 활동하며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 등과 깊이 사귀었다. 특히 최순우, 황수영과는 전국 각지로 고적조사를 다니고, 북단장에서도 매일같이 만났다. 또한 1960년에는 고고미술동인회(考古美術同人會)를 발기하여 운영의 핵심을 담당하면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전형필은 1962년 1월 26일 급성 신우염으로 갑자기 타계한다. 그의 죽음은 민족미술계의 전체의 크나큰 슬픔이며 민족의 슬픔이었다. 정부는 그의 문화재 수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62년 8.15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추서하고 뒤이어 1964년 대한민국문화훈장국민장을 다시 추서한다.
1965년 고고미술동인인 동빈 김상기, 남운 이홍직, 혜곡 최순우, 초우 황수영, 수묵 진홍섭, 삼불 김원룡 등이 발기인이 되어 북단장에 민족미술연구소를 설립한다. 또 보화각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하여 1966년 4월에 정식으로 민족미술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민족문화 수호의 일생을 바친 전형필. 그는 우리의 골동 서화에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을 찾아내고 예술과 역사를 지켜냈다.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를 약탈당하던 때 그는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에 일생을 바쳤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수많은 문화재들을 남겨 주었다.



광릉에서, 뒷줄 맨 왼쪽이 최순우, 왼쪽에서 세번째가 전형필, 1955년



연보

1906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12번지 출생
1921년 어의동공립보통학교 졸업
1926년 휘문고등보통학교 졸업
1930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과대학 졸업. 귀국 후 오세창 선생과 교류
한국문화재 수집 시작
1932년 관훈동 한남서림(翰南書林) 운영
1938년 성북동 소재 사립박물관 보화각 개설
1940년 동성학원 설립
1945년 보성중학교장 겸임
1947년 고적보존위원회(古蹟保存委員會) 위원
1954년 문화재보존위원회(文化財保存委員會) 위원
1956년 교육공로자 표창
1962년 별세

김 기 창 金基昶, 1914-2001

화가 운보(雲甫) 김기창은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8번지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다섯 살 부터 와룡동의 서당에서 한학(漢學)과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 경험이 후에 예술가의 인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기창은 일곱 살에 승동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일 다음 날 소풍 겸 운동회가 열렸는데 이때 장티푸스에 걸렸다. 얼마가지 않아 병은 나았지만 체질상 상극인 인삼을 먹어 고열을 일으켜 청각신경이 마비되어 귀머거리가 된다.
김기창은 병을 치료한 뒤 열 두 살에 다시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너댓 살 어린 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한글과 일본어를 모두 읽지 못해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했다. 대신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열일곱 살에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의 제자로 들어가 수묵의 농담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순종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한 김은호는 특히 인물을 그리는 실력이 뛰어난 화가였다. 또한 전통화법에 안주하지 않고 일본화법과 서양의 원근감 등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김기창의 그림 실력은 나날이 발전하였다.
김기창은 1931년 제10회 조선예술전람회에 널뛰기를 그린 〈판상도무(板上跳舞)〉로 입선하여 미술계에 데뷔한다. 이때 어머니가 지어준 '운포(雲圃)'라는 화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후에 '포(圃)' 글자에서 글자를 가두고 있는 모양인 '口'를 없애고 '운보(雲甫)'로 호를 바꾸었다.

서른세 살이 되던 1946년 김기창은 서울 중구 예장동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우향 박래현과 결혼한다. 박래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미술을 배운 엘리트여성이었다. 이들의 결혼은 반대가 심했지만 사랑과 미술인이라는 동료애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다. 이후 김기창은 국립민속박물관 미술부장에 취임하면서 민속공예품과 민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였다. 결혼 4년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 김기창과 박래현 부부는 군산으로 피난을 간다. 전쟁이 한창인 1950년대 초에는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작품의 세계는 넓어졌다. 미군정 당시 서울시장을 지낸 김형민이 지원을 해주어 부산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부산 피난생활 중 그림을 팔아 군산 구암동에 집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예수의 일대기를 한국사람의 모습으로 그려 부산 YMCA의 후원을 받아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3여 년간을 지낸 군산 구암동 생활을 마치고 전쟁이 끝난 1954년에 김기창 가족은 서울로 돌아온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55-1. 이 때 역시 안정된 생활은 아니었지만 '운보-운향 부부전' 을 소공동의 공보원 전시실에서 개최하는 등 작품 활동을 계속 해 나갔다.

전쟁을 겪은 김기창은 한국의 문화를 주제로 격정적인 표현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싸우는 소, 달리는 군마는 스케일과 힘의 응집을 보여준다. 이 시절은 예술에 대한 넘치는 에너지로 작업에 임하던 때였다.[34] 또한 〈엿장수〉, 〈보리타작〉 등 반추상 작업을 꾸준히 했다. 정비석이 한국일보에 쓴 연재소설 「민주어족(民主魚族)」(1954.12~1955.8)의 삽화를 그렸으며, 홍익대학교에서 강사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956년에는 부인 박래현이 제8회 대한미협전에서 〈이른아침〉으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제5회 국전에서는 〈노점(露店)〉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여성화가로서는 최정상에 올랐다. 화가 박래현은 동양화의 전통적 관념을 벗어났고 판화 등 새로운 매체와 여성 특유의 감성을 바탕으로 섬세한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 1950년대에는 일상적인 풍경에서 모티브를 찾아 이를 재해석하였으나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상을 극복한 순수추상 작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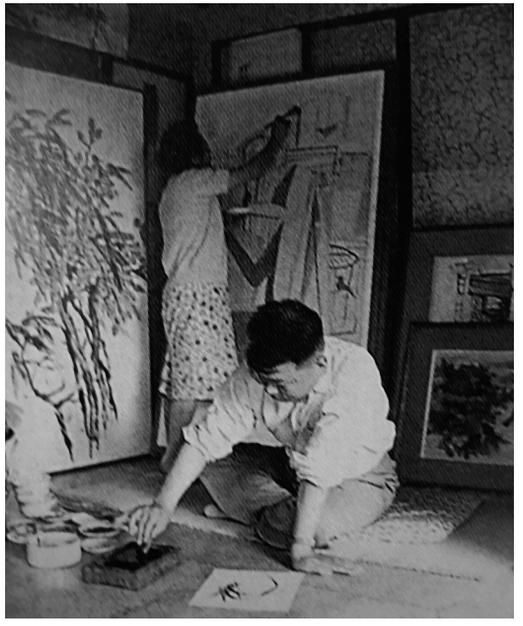
1962년에는 성북동 집에 30여 평인 화실을 지었다. 박래현은 남쪽, 김기창은 북쪽에서 각각 작업에 전념하였다. 김기창은 이때 추상의 세계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1971년까지 9년 동안 성북동 작업실에서 지내는 동안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기창과 박래현은 부부였지만 예술가로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다양한 시도를 도입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성북동 자택에서 작업 중인 김기창

우리는 30평 남짓한 화실에서 제대로의 칸막이도 없이 제작을 한다. 두 개의 직장이 한 곳에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환도후 5년만에 겨우 마련한 고지의 화실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도장이기도 하다.

- 박래현, 「반생에 서서 지금까지」, 『여원』, 1967.2 -[35]



성북동 자택에서 작업 중인 김기창과 박래현 부부

이후 화실을 인사동으로 옮겨 갔는데, 운보와 운향의 호에서 한 글자 씩 따서 '운향화실(雲鄕畵室)' 이라고 하였다.[36] 1967년에는 박래현이 작품 전시를 했던 뉴욕에 남아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하여 7년 동안 떨어져 각자 작업을 했다.

1972년 김기창은 고향인 충북 청원군에 2만 5천 평의 산을 마련하고 집을 짓는다.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던 바람대로 고향땅에 한옥을 지었다. 친한 친구였던 최순우와 의견을 나누었고, 정자처럼 조촐한 집을 한 칸 짓자던 바람을 실현하였다. 성북동 승설암(인곡 배정국의 집)에 있다가 주인을 잃고 나돌다 김기창이 사들인 수석도 마당 한 켠에 자리를 잡았다.

김기창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한층 자연과 가까워진 집에서 지내며 그를 대표하는 작품인 바보산수화 작업을 활발하게 하였다. 바보산수 시리즈는 산, 새, 꽃, 말, 사슴, 농악, 소나무, 대나무, 오두막, 문자도 등 민화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이다. 김기창은 바보처럼 순수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느낄 수 있는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1974년 미국에 갔던 박래현이 귀국하였다. 돌아온 후 제일 먼저 성북동 집을 개조하였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판화도구를 가지러 간 미국에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온다. 2년 간 투병 끝에 1976년 성북동 자택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김기창은 박래현의 묘를 청원 집 가까이에 둔다. 다음 해 김기창은 성북동 집을 고쳐 '운향미술관' (현재 운우미술관)을 개관한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예술적 동지를 잃었지만 김기창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장애아들을 위한 후원회와 전시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또, 성북동에 사는 화가들이 기증한 작품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는 성북장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기창, 박래현 부부가 살던 성북동 운향화실은 사라졌다. 많은 작품이 탄생했던 집이자 미래의 화가들을 키우겠다는 꿈을 세운 곳이기도 했다. 지금 성북동에는 운우미술관만 남아 운보 김기창과 우향 박래현을 기억하게 한다.

연보

1913년 서울 출생
1920년 장티푸스로 청각을 잃음
1930년 승동(勝洞)보통학교를 졸업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처음 입선.
　　이후 연 5회의 입선과 연 4회 특 선을 기록
1946년 우향 박래현과 결혼
1956년 국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 수도여자사범대학과 홍익대학교 교수 역임
　　5 · 16민족상(1986) · 서울시문화상(1986) · 색동회상(1987) 등 수상
2001년 별세

조지훈 趙芝薰, 1920-1968

시인 조지훈의 본명은 '조동탁(趙東卓)' 으로 경북 영양군 주실마을에서 태어났다. 고향 마을은 조선시대 조광조 사화로 한양 조씨 일가가 낙향한 곳이다. 주실마을은 문필봉(文筆峰)이 있는 명당으로 조지훈뿐만 아니라 문인과 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조지훈은 고향에서 독학으로 중학 과정을 마친 뒤 혜화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불교를 배웠다. 열일곱 살 때 성북동에 있는 심우장으로 한용운을 찾아 간 적이 있다. 이때 받은 영향으로 「한용운론」과 『한용운 전집』을 집필했다.

스물다섯 살에 한글학회 『국어교본』편찬위원이 되었다. 이듬해 2월에 경기여고 교사, 9월에는 서울여전(고려대 의과대학 전신)에서 근무를 하였다. 동국대학교 강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시를 쓰기도 했다. 이무렵 성북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박목월과 박두진, 조지훈이 함께 시를 모아 『청록집』을 간행한다. 이때 성북동 조지훈의 집에 모여 원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청록집은 근원 김용준이 장정을 맡았고, 김의환이 시인의 얼굴 소묘를 그렸다. 스물일곱 살에는 고려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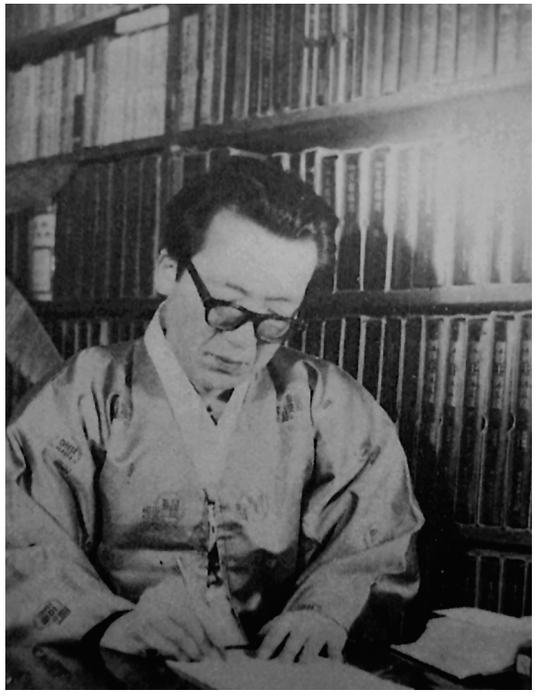
김용준 장정, 『청록집』

조지훈은 집을 조금만 벗어나도 숲이 있는 성북동을 좋아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은 좋아하지 않았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보다 바위와 나무가 많은 곳에서 고즈넉이 살고 싶어 했다.

성북동 집 대문으로 들어가면 문간 왼쪽에는 작은 툇마루가 있고, 문간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이 달려 있었다. 좁은 마당을 가운데 둔 'ㄷ' 자형 남향집이었다. 서재로 사용한 사랑방은 서쪽은 문간방, 동쪽은 큰 마루, 남쪽은 마당으로 나가는 미닫이문과 통해 있어 온전한 벽은 북쪽뿐이었다.

당시 성북동은 교통이 불편해서 종로4가에서 돈암동행 전차를 타고 성북동까지 걸어 다녔다. 시내로 나올 때는 혜화동 로터리에서 보성학교 옆을 지나 고갯길을 걸어서 넘어 다녔다. 종로나 명동에는 조지훈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즐겨 찾던 다방이며 술집들이 있었다. 술을 좋아했던 조지훈은 지인들과 헤어진 후에 성북동 집까지 걸어오곤 했다.
술을 마시다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파출소 신세를 지기도 했다. 어느 날은 자정이 넘었는데도 조지훈이 집에 오지 않아 가족들이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성북동파출소에서 새벽 두 시가 넘은 시간, 파출소에 계시니 모셔다 드리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술에 취해 성북동 길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늘 친구들이나 제자들과 술을 즐겨 부인이 책을 언제 썼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조지훈은 주로 성북동 집 사랑방에서 글을 쓰고 연구를 하였다. 사랑방을 서재로 쓰면서 손님도 맞고 잠도 잤다. 서재에 있을 때와 제자를 대할 때만큼은 진지한 학자이자 스승의 모습이었다. 사랑방은 서너 명만 모여도 꽉 차던 작은 방이었다. 그 작은 방에서 조지훈은 많은 시와 논문을 썼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키워냈다.



성북동 자택에서 집필 중인 조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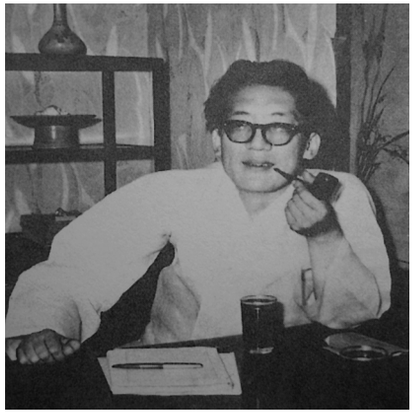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다. 성북동 집에서 방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던 중이었다. 박목월이 와서 잠을 깨웠다. 전쟁 소식을 들은 조지훈은 "한 번은 오고야 말 날이 기어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고생스러운 피난길. 가족과 헤어져 전쟁을 피하던 조지훈은 종군문인으로 활동하다 서울로 돌아와 식구들을 만났다. 전쟁동안 성북동 집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장소로 이용되었는지 마당 곳곳에 붕대가 널려 있었고 잡초로 가득했다.

조지훈의 아버지 조헌영은 한방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제헌 국회의원을 두 번 지낸 인물로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아버지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성북동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쟁 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았다. 버려졌던 집을 돌보고 마당에 손수 화단도 만들어 돌나물도 심어 놓았다.
조지훈은 방우산장(放牛山莊)이라는 당호를 붙여 「방우산장기」라는 수필을 썼다. 소를 몰수 있는 한가로운 곳이면 어디나 내 집이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성북동 집을 대했다. 또한 성북동을 소재로 하여 「운무(雲霧)」라는 작품도 썼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운 일 아직은 내게 없는 데 머언 산을 바라보면
구름 그리매를 보면 나 수정같은 마음에 슬픈 안개가 어린다.
성북동 넘어가는 성벽 고갯길 우이동 연봉은 말없는 석산(石山) 오랜 풍설에 깎이었어도
보랏빛 하늘 있어 장엄하고나.

당시 성북동에는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많이 살았고, 서로 교류를 하며 지냈다. 조지훈이 살던 집 안방 쪽 축대 밖으로 개천이 흘렀는데, 그 개천 건너에 있는 한옥에는 서울대학교 최문환 교수가 살았다. 개울을 따라 북쪽으로 걸어가면 운보 김기창 화백과 수화 김환기 화백이 살았다. 길을 건넌 곳에는 작곡가 윤이상이 살았다.[37] 두 사람은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어 친하게 지냈다. 조지훈이 작사를 하고 윤이상이 곡을 붙여 노래를 짓기도 하였다.

건강을 위해서 조지훈의 가족은 산자락 아래 지닌 '꿩의 바다' 에 땅을 매입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로 했다. 집을 짓는 동안 거처할 전셋집을 계약해 놓고 이사를 준비하는 중에 조지훈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가 살던 성북동 집 60번지의 44호. 건평 35평짜리 한옥은 지금 자취를 찾아 볼 수 없다.[38]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건물 입구에 서 있는 시비만이 성북동에 살며 많은 업적을 남긴 조지훈을 기억하게 할 뿐이다.



연보

1939년 『문장』에 「고풍의상」과 「승무」를 추천받아 문단에 등장
1946년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1946년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청록집』간행
1956년 자유 문학상을 수상
1961년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 시인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
1962년 고려대학교 부설 민족문화 연구소장에 취임
1968년 별세

최순우 崔淳雨, 1916-1984

한국 미(美)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최순우는 우리나라 미술평론과 박물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개성에서 태어나 송도보통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문학 소년이었던 최순우는 개성부립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미술사를 개척한 고유섭을 만나 우리 문화유산에 눈을 뜨게 된다. 고유섭은 개성박물관장을 지내며 후학을 키웠는데, 최순우, 진홍섭, 황수영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미술사학계에서 '개성삼걸' 로 불린다.

개성부립박물관에서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전근을 오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한 최순우는 삼청동 작은 한옥에 거처를 마련한다.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과 박물관을 꾸려나가며 한 때 자경전 뒤쪽에 있는 박물관 관사에 살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에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이때 전쟁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 소장품도 부산으로 옮겼다. 최순우는 박물관 이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 꼽힐 정도며 부산 피난과 몇 차례에 걸친 박물관 이전 때마다 문화재를 안전하게 옮기는 일을 맡아서 하였다.

또한 1957년 한국 최초의 외국 순회전시로 미국에서 열린 '한국고대문화전' 과 1960년대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열린 '한국미술5천년전' 을 주관하는 등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업적을 세웠다.

또한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하여 그때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 역사와 일본 문화와 관계를 밝혔다. 이후 최순우는『水墨美術大系』,『李朝工藝』등을 일본에서 출판하여 한국미술과 문화를 알렸다.

해방 후 궁정동에 살던 최순우는 1976년 성북동에 있는 한옥으로 이사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미술5천년전' 을 개최하는 바쁜 시기였다. 그럼에도 틈틈이 손수 집안 단장을 하였다. 1930년대 지은 'ㄱ' 자 모양 안채에 앞뜰과 뒤뜰이 1930년대 지은 근대한옥은 주인의 안목과 손길로 때를 벗고 정갈하고 소탈한 분위기를 갖추게 된다. 니스를 칠한 기둥은 칠을 모두 벗겨내어 자연스러운 나무색이 나도록 했고, 방 안에는 전통 목가구를 놓아 조선시대 선비의 방에 들어 온 듯한 분위기를 냈다. 넓은 뒤뜰에는 전통 한옥의 뒤뜰이 그랬던 것처럼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을 집안에 들여놓은 듯 산나무와 들꽃을 심고 가꾸었다.

우리 문화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연구하는 학자이자 박물관인으로서 그의 안목은 모두가 인정할만한 것이었다. 즐겨 수집한 수석과 벼루, 백자를 집안 곳곳에 놓아두곤 했는데, 하나하나 제 자리를 맞춘 듯 집과 잘 어울리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최순우는 개성에 있을 때부터 조선고적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문화유산을 답사했고, 박물관에 있으면서는 강진 고려청자 가마터, 신안 해저유물 등 발굴현장을 누볐다. 박물관 사업으로 진행된 답사와 발굴 외에도 미술평론가 이경성, 화가 전성우, 시인 이흥우 등 친한 사람들과 우리 문화를 찾아 다녔다. 1960년에는 간송 전형필, 김원룡(고고학자), 진홍섭(개성분관 초대 관장) 등과 '고고미술동인회' 를 결성하여 『고고미술』을 발간하고 연구물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일생동안 문화재를 발굴하고 수집하며 역사를 연구하고 밝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더욱 잘 알도록 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을 살리고, 현대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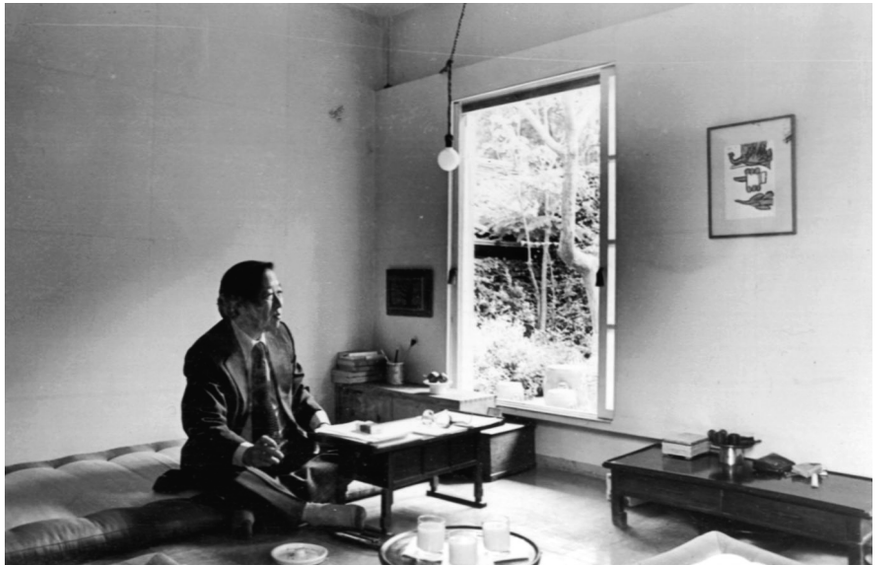
성북동 자택에서, 최순우 부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술과장으로 있을 때 관장실 보다 미술과장실에 더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가 오갔다. 이는 최순우가 우리나라 미술평론계를 이끄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65년에는 이경성, 이구열, 오광수, 김환기, 김향안, 김중업 등이 발기한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초대회장을 맡았다. 이 협회는 현재까지 미술평론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 업무와 연구 활동, 미술평론으로 바쁜 생활을 하던 중에도 서울대 · 고려대 · 홍익대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문화재 해설에 관한 글을 신문에 연재했고, 방송에서 소장품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통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과 지식, 넉넉한 인품으로 많은 지인들이 주변에 항상 끊이지 않았다. 김광균, 김기창, 김환기, 변종하, 손재형, 이기우, 이종상, 유희강, 전형필, 천경자, 최영림, 한익환 등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가들과 교분을 나누었다. 건축가 김수근은 외국 유학에서 돌아와 우리 문화를 최순우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운 것이다.

성북동과 인연이 있는 지인들로는 전형필, 김환기, 김기창 등이 있다. 보화각을 짓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연 간송 전형필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간송이 지어준 '순우(淳雨)' 라는 이름을 본명처럼 썼고, '혜곡(兮谷)' , '우이(牛耳)' 라는 호 또한 간송에게 받은 것이다. 전형필은 최순우를 한 식구처럼 여겼고, 두 사람은 박물관 일로 최순우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에도 편지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살폈다. 현재 간송학파를 이끌고 있는 최완수도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던 시절 최순우(당시 미술과장)의 권유로 간송미술관과 인연을 맺게 된다.

수화 김환기는 최순우에게 성북동으로 이사 오기를 권하기도 했고, 적당한 집을 찾아 보여주기도 하였다. 도자기나 목공예의 진가를 알아보고 아낀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환기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성북동에 이웃하여 살지는 못하였지만, 최순우의 성북동 집 사랑방에는 김환기가 그린 그림이 한 점 있어 두 사람의 인연을 떠오르게 한다.



김환기 그림이 걸려 있는 자택 사랑방에 앉아있는 최순우

성북동에 살던 예술가와 인연을 말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운보 김기창이다. 어머니를 따라 개성에서 잠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김기창은 최순우를 만났고, 이후 서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우정을 쌓았다. 그들의 집은 걸어서 5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김기창이 청주에 한옥을 지을 때에도 같이 구상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집을 완성시켰다. 김기창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최순우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와사등」, 「자오선」과 같은 시를 쓴 김광균과 한국적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화가 변종하도 성북동에 살며 교류를 한 예술가이다.

杜門卽是深山 문을 닫으면 곧 깊은 산중이다

최순우가 살던 성북동 집에 걸린 현판이다.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여름 직접 써서 사랑방 위에 걸었다. 옆에는 낮잠 자는 노인이라는 뜻인 호[午睡老人]가 적혀있다. 뒤뜰로 통하는 사랑방 문에는 단원 김홍도가 힘 있는 필체로 쓴 '오수당(午睡堂)' 현판이 걸려있다. 이 글씨는 1966년에 발견한 『단원유묵첩』에서 얻은 것인데, 이 무렵부터 최순우는 '오수노인' 이라는 당호를 썼다.
아가위나무, 도토리나무, 모과나무, 단감나무처럼 우리 산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와 강진 발굴 조사지에서 캐온 국화로 어우러진 뒤뜰은 산 속과 같은 분위기를 항상 느끼게 해주었다.

소박하고 순박한 한국 미(美)를 아낀 최순우는 조선시대 백자의 아름다움을 높게 평가하여 집안 곳곳에 백자를 두고 감상하였다. 조선시대 선비의 방처럼 정갈한 목가구들이 놓인 성북동 자택에서 최순우는 평생을 우리 문화와 함께 한 안목이 담긴 글을 썼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미술과 공예, 건축, 민속을 모두 아우르는 글에서 학자로서 최순우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사후에 글을 모아 『최순우전집』(1~5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가 출판되었다. 정감 있으면서 힘 있는 최순우의 글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길잡이로 자리 잡았다.

2002년 겨울, 최순우가 살던 성북동 집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증으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지켜졌다. 다세대주택으로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한옥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시민 후원금으로 매입하였다. 이후 보수를 거쳐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시민문화유산 제1호 '최순우 옛집' 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평생 박물관인으로 외길을 걸으며 우리 문화를 아끼고 널리 알렸던 최순우가 살던 이 집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보전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남들처럼 고대광실이나 넓은 후원은 아니지만 나는 내 나름으로 좁은 뜰에 가지가지 산나무들과 조촐한 들꽃들을 가꾸면서 호젓하고도 스산한 산거의 멋을 즐겼고 남의 기름진 뜰이 부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나에게는 이 산사나무들과 들꽃들이 지닌 미덕이 그리도 컸다고 할 만하다.

- 최순우, 「낱낱으로 본 한국미」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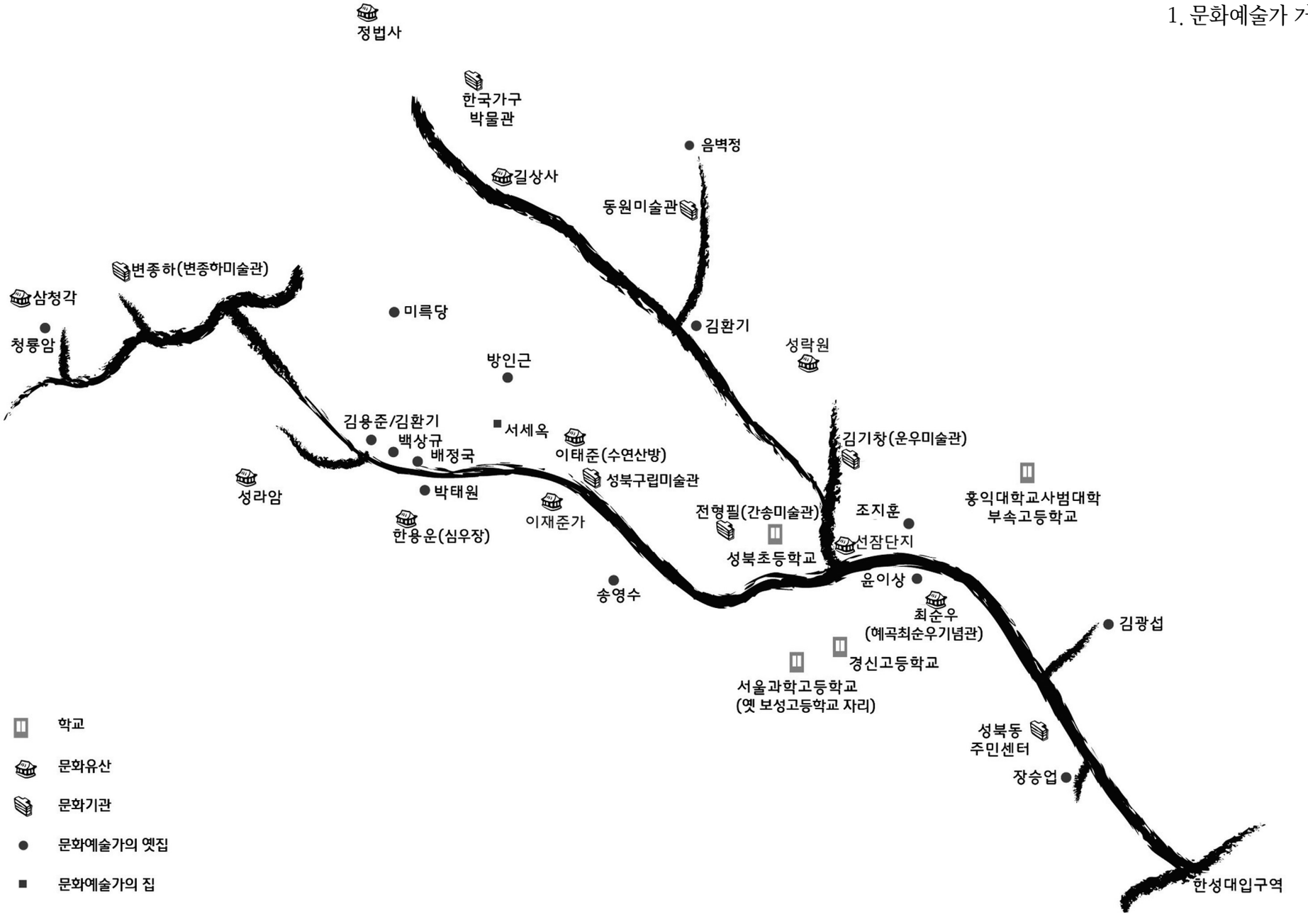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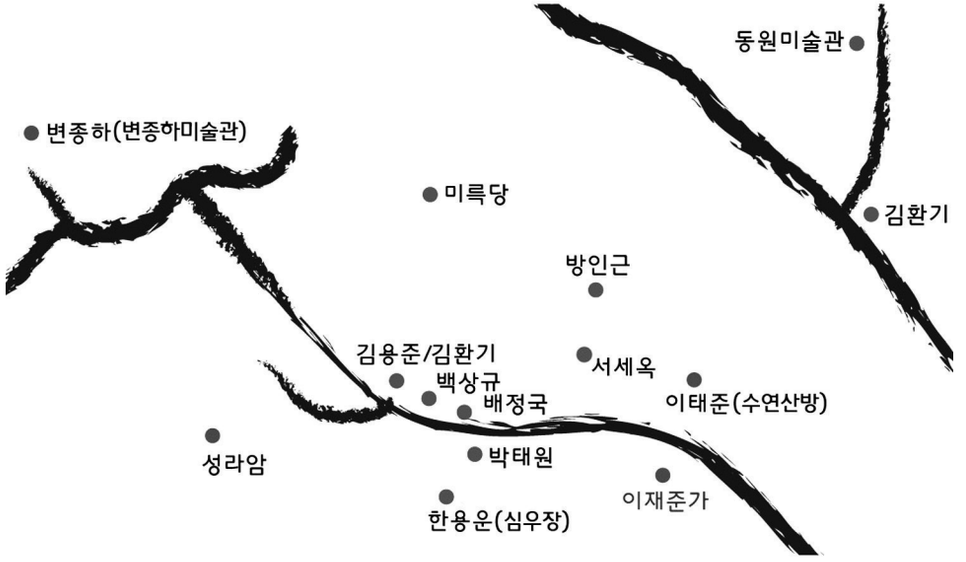
연보

1916년 개성 출생
1935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마침
1935년 조선고적연구회 활동, 고유섭에게 미술사를 배움
1943년 개성부립박물관 연구원
1948년 국립박물관 박물감
1950년대 이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미술사 강의
1960년 고고미술동인회 결성, 동인지 『고고미술』발간
1965~1966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초대회장
1967~1984년 문화재위원회 위원(제1분과)
1974년 국립중앙박물관장 취임
1976년 한국미술사학회 회장(5~6대, 1976~1979)
1981년 홍익대학원 명예문학박사 학위 취득
1984년 별세

부 록

1. 문화예술가 거주지 지도





동원미술관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미술관으로 1967년 개관하였다. 동원 이홍근 선생이 평생 모은 문화재를 전시하였다. 수집품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이홍근 선생의 뜻을 받들어 1980년 수집품 4,94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지금까지 학술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술관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화가 변종하

한국적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이다. 1950년대 국전에 여러 차례 입상하여 두각을 보였고, 프랑스 유학 중 독특한 질감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입체감과 생동감을 살린 '요철회화'로 개성을 인정받았다. 작고 후인 2001년 성북동 자택에 '변종하미술관' 을 열었다.

소설가 방인근

말년에 허름한 작은 집에 살았다. 마당이 없고 대문을 열면 바로 마루가 있는 시멘트로 지은 집이었다. 문학잡지 간행과 편집을 맡아 문단에 기여한 작가이며, 대표작으로 『하늘과 바다』가 있다. 성북동 집은 이후 빌라가 생기면서 없어졌다.

성북장학회

성북동에 사는 화가들이 만든 모임이다. 40여 년 전부터 성북구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참여한 작가는 김기창, 김충현, 서세옥, 송영방, 신영상, 윤중식, 이규선, 임송희, 전창운, 정하경, 조문자, 차명희, 최만린(가나다순) 등이다.



작곡가 윤이상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집장사들이 지어 팔았던 마당도 없는 작은 한옥에 살았다. 집 앞으로는 개울물이 흘러 판자를 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윤이상은 조지훈과 친분이 돈독하여 조지훈이 작사를 하고, 윤이상이 작곡을 한 노래가 많다.

소설가 전광용

삼선교 근처에 살았다. 소설『꺼삐딴리』가 대표작이며,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지내며 후학 양성에 힘쓴 작가이다.

보성고등보통학교

1906년 상인 이용익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출발은 보성중학교였으나 1922년 보성고등보통학교로 개명했다. 1940년 간송 전형필이 인수하고, 1945년부터 보성중학교장을 하였다. 보성고보 출신 예술가에는 화가 도상봉, 소설가 이상, 시인 임화 등이 있다. 도상봉은 보성고보 시절 고희동선생께 가르침을 받고, 후에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외에 이종우, 김용준도 보성고보에 몸담았다.

2. 인물 목록

○ 본문에 나온 인물
▲ 성북동 거주 문화예술인(작고)
■ 성북동 거주 문화예술인(생존)

이름		생몰연도	호	분야	비고	
고희동	高羲東	1886~1965	春谷	화가	○	
김광균	金光均	1914~1993	雨杜	시인	○	
김기림	金起林	1908~?	片石村	시인	○	
김상기	金庠基	1901~1977	東濱	사학	○	
김영한	金榮漢	1857~1927		정치	○	
김용진	金庸震	1878~1968	穎雲	서화가	○	
김원룡	金元龍	1922~1993	三佛	고고학자	○	
김원봉	金元鳳	1898~1958	若山	독립운동가	○	
김은호	金殷鎬	1892~1979	以堂	화가	○	
김일엽	金一葉	1896~1971		스님, 시인	○	
김적음	金寂音	1900~1961	碧山	스님	○	
김종삼	金宗三	1921~1984		시인		▲
김좌근	金左根	1797~1869	景隱	문신	○	
김중업	金重業	1922~1988	如泉	건축가	○	▲
김진우	金振宇	1882~1950	一州	화가	○	
김향안	金鄕岸	1916~2004		수필가	○	▲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조각가		▲
노수현	盧壽鉉	1899~1978	心汕	동양화가	○	
노천명	盧天命	1912~1957		시인	○	
동욱	東旭			스님	○	
모윤숙	毛允淑	1910~1990	嶺雲	문학	○	
민영환	閔泳煥	1861~1905	桂庭	정치	○	
박길용	朴吉龍	1898~1943		건축가	○	
박두진	朴斗鎭	1916~1998	兮山	시인	○	
박래현	朴崍賢	1920~1976	雨鄕	화가	○	
박목월	朴木月	1916~1978	泳鍾	시인	○	
박병욱	朴炳旭	1939(34?)~		화가		■
박용남				의원	○	
박종화	朴鍾和	1901~1981	月灘	소설가	○	
방응모	方應謨	1890~?	啓礎	언론인	○	
백두진	白斗鎭	1908~1993	小溪	전 국무총리	○	
백상규	白象圭	1880~1957		정치가	○	

변종하	卞鍾夏	1926~2000	石隱	화가	○	▲
서세옥	徐世鈺	1929~	山丁	화가	○	■
서항석	徐恒錫	1900~1985	耿岸	독문학자,연극인	○	
석산	石山			스님	○	
손재형	孫在馨	1903~1981	小田(筌)	화가	○	
송영방	宋榮邦	1936~	牛玄	화가		■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조각가		▲
송진우	宋鎭禹	1889~1945	古下	독립운동가, 언론인	○	
신영상	辛永常	1935~	老石	화가		■
안종원	安鐘元	1874~1951	石丁	서화가	○	
양건식	梁建植	1889~1938	白華	소설가	○	
오광수	吳光洙	1938~		미술평론가	○	
오세창	吳世昌	1864~1953	葦滄	독립운동가, 서예가	○	
오지호	吳之湖	1905~1982	毋后山人	화가	○	
위안스카이	袁世凱	1859~1916		중국 정치가	○	
유희강	柳熙綱	1911~1976	劍如	서예가	○	
윤이상	尹伊桑	1917~1995		작곡가	○	
윤중식	尹仲植	1913~		화가		■
의친왕	義親王	1877~1955	晩悟	고종의 다섯째 아들	○	▲
이경성	李慶成	1919~	石南	미술평론가	○	
이광수	李光洙	1892~1950	春園	소설가, 평론가	○	
이구열	李龜烈	1932~	靑餘	미술평론가	○	
이규선	李奎鮮	1938~	南溪	화가		■
이규호		1920~		화가		■
임송희	林頌羲	1938~	以石,心井	화가		■
이기우	李基雨	1921~1993	鐵農	전각가	○	
이마동	李馬銅	1906~1981	靑駒	화가	○	
이병기	李秉岐	1891~1968	嘉藍	국문학자	○	
이상	李箱	1910~1937		시인	○	
이상범	李象範	1897~1972	靑田	동양화가	○	
이선근	李瑄根	1905~1983	霞城	사학자	○	
이순황	李淳璜			문화재중개상(거간)	○	

이승만	李承萬	1903~1975	杏仁	삽화가	○	
이은상	李殷相	1903~1982	鷺山	시인	○	
이종상	李鍾祥	1938~	一浪	화가	○	
이홍근	李洪根	1900~1980	東垣	기업가, 문화재수집가		▲
이흥직	李弘稙	1909~1970	南雲	사학자	○	
임규	林圭	1867~1948	偶丁	독립운동가	○	
전성우	全晟雨	1934~		화가		■
전창운	全昌雲	1942~		화가		■
정지용	鄭芝溶	1902~1950		시인	○	
정하경	鄭夏景	1943~		화가		■
조문자	趙文子	1939~		화가		■
조택원	趙澤元	1907~1976		무용가	○	
조헌영	趙憲泳	1901~1988	海山	한의학자	○	
진홍섭	秦弘燮	1918~	樹默	미술사학자	○	
차명희	車明喜	1947~		화가		■
천경자	千鏡子	1924~	玉史	화가	○	
최만린	崔萬麟	1935~		조각가		■
최문환	崔文煥	1916~1975	曉岡	교육가	○	
최영림	崔榮林	1916~1985		화가	○	
최완수	崔完秀	1942~	嘉軒	학예사	○	
한익환	韓益渙	1921~2006		도예가	○	
함대훈	咸大勳	1906~1949	一步	소설가	○	
허영자	許英子	1938~		시인		■
홍순필	洪淳泌			기업가	○	
황수영	黃壽永	1918~	蕉雨	미술사학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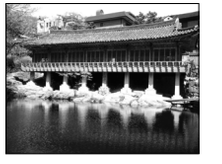
3. 문화유산 목록

명칭		지정번호	주소	내용
간송미술관	澗松美術館		성북동 97-1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사립박물관
길상사	吉祥寺		성북동 323	조계종 사찰
변종하미술관	卞鍾夏美術館		성북동 330-484	화가 변종하의 집
삼청각	三淸閣		성북동 330-115	전통문화공연장
서울성곽	--城郭	사적 제10호		조선시대 서울을 둘러쌌던 도성(都城)
선잠단지	先蠶壇址	사적 제83호	성북동 64-1	조선시대 잠농(蠶農)의 번영 기원
성락원	城樂苑	사적 제378호	성북동 2-22	조선시대 의친왕 별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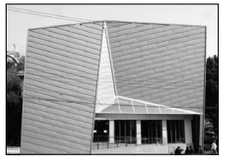








명칭	지정번호	주소	내용
성북구립미술관	城北區立美術館	성북동 246	구립 최초의 미술관
심우장	尋牛莊	성북동 222-1	승려 한용운의 집
운우미술관	雲雨美術館	서울시기념물 제7호	성북동 55-1	화가 김기창과 박래현 작품 소장
이재준가	城北洞 李鍾奭 別莊	성북동 243-4	이종석 별장
이태준가	尙虛李泰俊 家屋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0호	성북동 248	소설가 이태준의 집, 수연산방(壽硯山房)
최순우옛집	崔淳雨古宅	서울시 민속자료 제11호	성북동 126-20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순우의 집
한국가구박물관	韓國古家具博物館	등록문화재 제268호 / 시민문화유산 제1호	성북동 330-577	전통 목가구 전문박물관









그림출처

〈마을 이야기〉
1- 성북동 전경사진, 2009
2- 김용준,『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27쪽.
3- 이규일,『이야기 하는 그림』, 시공사, 1999, 210쪽.
4- 서세옥 소장, 사진 이은경
5- 일러스트 김진,『성곽마을스케치』, 국민대학교, 2009

〈한용운〉
1- 사진 남희경
2- 사진 남희경

〈김용준〉
1- 김용준,『근원 김용준 전집』5, 열화당, 2002, 326쪽.
2- 김용준,『근원 김용준 전집』5, 열화당, 2002, 358쪽.
3- 서세옥 소장, 사진 이은경

〈이태준〉
1- 수연산방 소장
2- 김용준,『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84쪽.
3- 이태준,『복덕방 : 상허단편선』, 을유문화사, 1947, 표지.
4- 김용준,『근원 김용준 전집』5, 열화당, 2002, 326쪽.

〈박태원〉
1- 사진제공 박재영
2- 사진제공 박재영

〈김환기〉
1- 김향안,『월하의 마음』, 환기미술관, 2005, 76쪽.
2- 김용준,『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83쪽.
3- 김향안,『월하의 마음』, 환기미술관, 2005, 47쪽.
4- 김향안,『월하의 마음』, 환기미술관, 2005, 60~61쪽.

〈김광섭〉
1- 김광섭,『나의 옥중기』, 창작과 비평사, 1976
2- 김광섭,『나의 옥중기』, 창작과 비평사, 1976
3- 김광섭,『나의 옥중기』, 창작과 비평사, 1976

〈전형필〉
1- 전성우,『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1996
2- 전성우,『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1996
4- 전성우,『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1996
3- 전성우,『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1996

〈김기창〉
1-『김기창』, 현대갤러리, 2000, 121쪽.
2-『김기창』, 현대갤러리, 2000, 120쪽.

〈조지훈〉
1- 박목월 · 조지훈 · 박두진,『청록집』, 을유문화사, 1949년
2- 조광렬,『승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나남출판, 2007, 184쪽
3- 조광렬,『승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나남출판, 2007, 424쪽

〈최순우〉
1- 혜곡최순우기념관 소장
2- 혜곡최순우기념관 소장
3- 사진 김재경, 혜곡최순우기념관 소장

각 주

1) 『동명연혁고』-성북구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3, 35쪽
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종합화와 조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179~181쪽
3) 김향안, 『월하의 마음』, 환기미술관, 2005, 16쪽
4) 『동명연혁고』-성북구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3, 36쪽
5) 「성북동 대사촌」, 조선일보, 1996.10.31.
6) 『한국지명총람』 1, 한글학회, 1966, 124쪽
7) 與崔默齋 訪徐中觀於城北洞, 城北僧舍 與諸友同吟, 景悔堂 招飮于城北僧舍, 早春遊靑龍菴 등 성북동을 찾았던 일을 시로 남겼으며, 말년에 성북동에서 살 때 山居 雜詠이라는 시를 남겼다 (임규, 『북산산고』, 깊은샘, 2004).
8) 조광렬, 『승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주)나남출판, 2007, 329쪽
9) 이기웅,『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12쪽
10) 조영복,『월북예술가 오래 잊혀진 그들』, 조영복, 돌베개, 2006, 244쪽
11) 김용준,『근원 김용준 전집』5, 열화당, 2002, 313~314쪽
12) 조영복, 『월북예술가 오래 잊혀진 그들』, 돌베개, 2006, 247~248쪽
13) 민충환,「이태준 전기적 고찰」,『상허학보』1호, 상허학회, 1993, 33쪽
14) 민충환,「이태준 생애연보」,『상허학보』1호, 상허학회, 1993, 부록 참고
15) 1933년 8월에 창립된 순수예술을 지향하던 문학인들의 친목단체. 김기림 · 이효석 · 이종명 · 김유영 · 유치진 · 조용만 · 이태준 · 정지용 · 이무영 등이 창립회원이었다. 한 달에 2,3회의 모임과 문학 강연회를 가졌으며, 박태원과 이상이 중심이 되어 기관지 『시와 소설』을 펴냈다.
16) 이태준,『서간문 강화』, 깊은샘, 2007, 178쪽
17) 이태준, 「난」, 『무서록』, 범우사, 1999, 86쪽
18) 『달밤』,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년; 『복덕방』, 을유문화사, 1947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2, 84쪽, 90쪽 재인용)
19) 중국문학가. 서울 출생. 호는 백화(白華) · 국여(菊如). 3 · 1운동 이후 문학을 통해 민족주의를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근대문학사의 주요 문제인 전통과 새로운 개혁의 접목에 주력한 선구자였다. 소설 「석사자상(石獅子像)」,「미(迷)의 몽(夢)」 ,「슬픈 모순」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홍루몽(紅樓夢)」 등의 중국문학을 현대식 구어체로 번역 · 소개하였는데 그의 한글문체는 한용운(韓龍雲)에게 영향을 주었다.
20) 이 작품의 제목은 발표당시 '入學' 으로 되어있으나, '달마지[迎月]' 로 보아야 한다. 1923년 4월 15일에 『동명(東明)』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동명』은 3월 4일부터 '달마지' 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모집하여 4월 15일까지 당선작을 싣고, 4월 15일자에는 다음에 모집하는 글의 제목이 '입학' 이라고 공고하고 있다. 이 글의 제목이 '입학' 으로 잘못 인쇄된 것은 이런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태원이 쓴 글의 내용은 정월 보름날에 달맞이한 내용을 쓰고 있다(김홍식, 「박태원연구」, 국학자료원, 2000, 106쪽).
21) 박재영 제공 사진
22)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출생. 『조선문학(朝鮮文學)』에 「목욕간」을 발표, 문단에 등단한 이래 1937～1947년 「성벽(城壁)」,「헌사(獻詞)」,「병든 서울」,「나 사는 곳」 등 4권의 시집을 차례로 냈다. 8 · 15광복 후 '조선문학가동맹' 에 가담, 문학 대중화운동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다가 1946년 월북하였다.
23) 조영복, 『월북예술가 오래 잊혀 진 그들』, 돌베개, 2007, 327쪽
24) 환기미술관,《해와 달과 별들의 얘기》, 환기미술관, 2007 오광수,《김환기》, 열화당, 1996, 24쪽
25) 김용준,「소루유아정」, 『신천지』, 1946(이기웅,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25~26쪽 재인용)
26) 김향안,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1989, 우석출판사, 157~158쪽
27) 이기웅,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82쪽
28) 김환기, 「산방기」,『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미술관, 2005, 69~70쪽
29) 오광수,『김환기』, 열화당, 1996, 70쪽
30) 오광수,『김환기』, 열화당, 1996, 32쪽
31) 김광섭, 『동경』, 대동인쇄소, 1938
32) 신경림, 『문학과 민중』, 민음사, 1977, 99쪽
33) 『심상』, 심상사, 1974년 8월호, 23쪽
34) 박명자,『바보예술 88년 운보 김기창 미수기념 특별전』, 갤러리 현대, 2000, 108~109쪽
35) 오광수, 『김기창 · 박래현』, 도서출판 재원, 2003, 130쪽
36) 최병식, 『운보김기창 예술론 연구』, 동문선, 1999, 37쪽
37)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창작과비평사, 1998, 62~63쪽
38) 조광렬, 『승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주)나남출판, 2007, 87쪽

조사개요

기　간 : 2009년 8월 13일부터 10월 31일

발　주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감　수 : 김인회(전 연세대 교수, 현 한양대 초빙교수)

　　나선화(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자　문 : 서세옥(동양화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사 · 원고 : 송지영(혜곡최순우기념관 학예사)

　　남희경(혜곡최순우기념관 연구원)

　　양유진(혜곡최순우기념관 연구원)

사　진 : 이은경

일러스트 : 김진 (diana0121@hanmail.net)

도움주신 분들 : 김위남, 김향규, 박재영, 사공정숙, 안창모, 여승구, 이민웅, 인권환, 하두호

자연과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 기부 ·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전 · 관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최순우 옛집(시민문화유산 1호)'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유산 : 최순우 옛집, 도래마을 옛집,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26-20 '최순우 옛집' | 02-3675-3401~2
http://www.nt-heritage.org | http://cafe.naver.com/ntchfund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297069 (예금주: 내셔널트러스트문화)



최순우옛집 전경



자 문

서세옥(徐世鈺, 1929~)

1929년 대구 출생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국무총리상
1950년 국립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제1회화과 졸업, 동대학원 입학
1954년 제3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운월의 장〉
1961년 제1회 국전초대작가상
1963년 제7회 상파울로비엔날레 참가
깐느국제회화제, 현대동양화초대전, 한국현대미술파리전 등 국내외 전시 참가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세옥전
2007~8년 미국 휴스톤 국립미술관, 세세옥회고전
2007~8년 일본 동경 에르메스미술관 특별전

- 성북동 260-10에 무송재(撫松齋)를 건축, 계속하여 보수재(寶樹齋), 회옥당(懷玉堂), 욕일연재(浴日硏齋)를 건축(1975년)
- 수상: 서울시문화상, 일민미술상, 의재미술상, 자랑스러운 미술인상, 한국현대미술거장상, 예총미술대상, 이동훈미술상
- 현재: 미국리스딕대학 명예미술학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성북구립미술관 명예관장
- 작품소장: (국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호암미술관 외 다수

(국외) Ministry of Culture, Paris, France
Bergen Museum of Art Science, Bergen County, New Jersey, U.S.A.
Fukuoka Museum, Japan
Pacific Asia Museum, Pasadena, California, U.S.A.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Museum, Providence, Rhode Island, U.S.A.
British Museum, London, England
Royal Ontario Museum, Ontario, Canada
Houston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exas, U.S.A.

발간 후기

서울성곽 바깥쪽에 자리 잡은 성북동은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이 흐르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근대화를 겪으며 예전 풍경을 많이 잃었으나 아직은 옹기종기 모인 집 사이로 골목을 따라 이야기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성북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큰 자취를 남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살며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책에서는 성북동에 살던 시인, 소설가, 화가, 문화재수집가, 미술평론가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인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성북동의 문화예술인들과 숨은 이야기를 다음 책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저희 단체가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알릴 수 있어 뿌듯함과 책임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개발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아끼고 즐겼던 풍경과 살던 집들이 흔적 없이 없어진 아쉬움이 새삼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 책 발간에 도움을 주신 산정 서세옥 화백, 문화예술인의 유족과 성북동 주민,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잇고, 새롭게 하여 우수성을 널리 알린 분들이 이곳 성북동에서 오가며 교류한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의 정과 예술혼을 느껴보시기 바립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이사장 김인희

성북동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

발　행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기획 · 진행 : 송지영

원고 · 교정 : 송지영, 남희경, 양유진

제　작 : 연두와파랑 02 3446 4738

디자인 : 이승언

인　쇄 : 삼화인쇄(주) 02 850 0850

발행일 : 2009. 11. 30